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2 No.1

세종연구원

UNINOMIC REVIEW

Vol. 2 No. 1

목 차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생존전략 | 강명구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 김득갑

중앙아시아 경제와 자원 | 김득갑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과의 협력 방안 | 오승구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25년과 신북방정책 | 윤성학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협력방안 | 조영관

세종연구원

UNINOMIC REVIEW

Vol.2 No.1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생존전략

강명구*

중앙아시아 지도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現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 중앙아시아 4국의 경제 현황

(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남부,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조지아 동부,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한 인구 950만 명의 국가로 면적은 8.7만㎢로 한반도 40%의 넓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수출의 95%, 재정의 70%, GDP의 40%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은 1860년대부터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원유 수출국으로 소련방체제 해체 이후 마이너스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에 대한 수요 확대로 1998~2009년 연평균 14.4%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세계 경기회복과 더불어 정부의 산업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민간소비가 확대되어 2013년에는 성장률이 5.8%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유가 하락과 원유생산 감소와 수출 수입 감소*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침체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저유가로 원유 수출액 감소, 정부 재정 악화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환율의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내수 감소로 인해 1996년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 들어와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과 정부지출 확대, 그리고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는 회복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달러)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6.2	26.4	5.0	5.8	2.7	0.6	-3.1	-1.0
GDP	53	133	529	736	752	508	376	392
1인당GDP(명목)	648 (3,710)	1,541 (6,980)	5,847 (15,621)	864 (17,132)	8,049 (17,761)	5,396 (17,927)	3,956 (17,453)	4,098 (17,433)
수출		76	282	359	326	200	176	
수입		44	102	195	197	184	165	
경상수지	-2	2	148	118	100	-2	-14	7
러시아로부터 송금			8.8	13.40	13.13	8.3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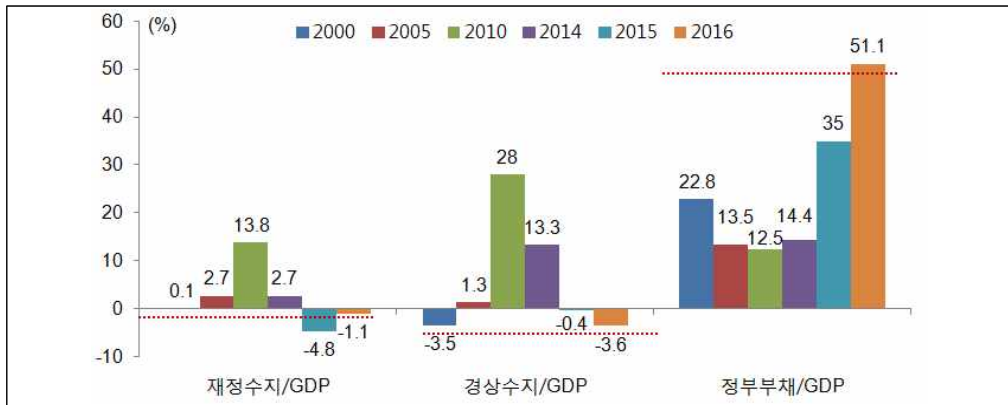
주 : ()는 PPP(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기준 1인당GDP

자료 : IMF, EIU,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은 아제르바이잔 전체 원유생산의 80%를 차지하며, 확인매장량은 50억 배럴로 원유 생산량은 2010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아제르바이잔의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 2015년에는 유가 급락으로 재정수지/GDP가 -4.8%로 위험한 상태였으나, 유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2016년에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경상수지/GDP와 정부부채/GDP의 비중은 GDP의 급감으로 2015년보다 나빠졌으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건전성 지표



주 : IMF*는 재정수지/GDP 비중이 △2%, 경상수지/GDP 비중이 △5%, 정부부채/GDP 비중이 50%,를 초과할 때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

자료 : IMF, 러시아 통계청

(2)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북부, 카스피해 동쪽 끝에 위치한 인구 500만 명 정도의 국가이다. 면적은 48.8만 km²로 한반도의 2.2배의 넓이다. 북부 및 서부는 건조지대이지만, 관개에 의해 밀, 면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규모의 천연가스(17.5조 m³, BP 16년말 기준)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러한 천연가스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최대 가스전인 갈키니쉬(Galkynysh) 가스전의 생산 확대 및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량 증가**와 건설, 유통, 운송, 통신 산업 등의 성장에 따라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0%

* IMF(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2009년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건설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천연가스 가격 하락, 유럽의 가스소비 감소로 인한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 중단 등으로 2016년 경제는 6.2% 성장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물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주도의 통제경제체제 유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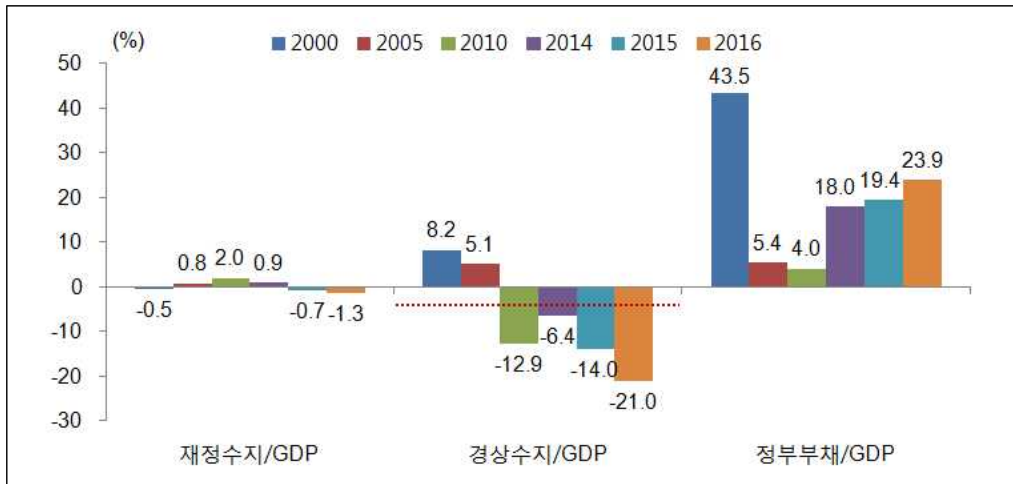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18.6	13.0	9.2	10.2	10.3	6.5	6.2	6.5
GDP	50	172	226	392	435	360	362	417
1인당GDP(명목)	1,116 (2,569)	3,617 (5,789)	4,479 (9,827)	7,480 (14,017)	8,191 (15,527)	6,690 (16,477)	6,622 (17,481)	7,522 (18,680)
수출		49	105	110	114	96	67	
수입		36	83	80	84	61	49	
경상수지	4	9	-29	-29	-28	-51	-76	
러시아로부터 송금			0.35	0.37	0.40	0.31	0.16	

주 : ()는 PPP(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기준 1인당GDP
 자료 : IMF, EIU,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투르크메니스탄은 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수입 중 에너지산업 의존도가 높아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가 하락으로 2009년 -16.6%, 2010년 -12.9%, 2014년 라·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급락으로 경상수지는 매우 악화되었다.

된 이후 현재까지 3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네 번째 가스관(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중국)의 완공 이후에는 최대 수출규모가 연 650억㎥으로 확대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건전성 지표



주 : IMF*는 재정수지/GDP 비중이 $\Delta 2\%$, 경상수지/GDP 비중이 $\Delta 5\%$, 정부부채/GDP 비중이 50%,를 초과할 때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
 자료 : IMF, 러시아 통계청

(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남쪽으로는 타지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인구 550만 명 정도의 내륙국가다. 면적은 19.9.8만 m^2 로 한반도의 95%의 넓이이다. 국토의 90%가 산악 지대로 목축, 광업과 남부 평야지대에서 채소와 밀을 생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12월 WTO를 가입하면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로서는 최초로 서구 자본경제를 도입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이처럼 서구 경제 도입에도 아카예프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부정부패, 작은 시장규모,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이 낮다. 2003년 이후에는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IT 산업 구축, 도로·철도·발전 등의 인프라 건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2005년 툴립혁명,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혼란이 반복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 IMF(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와 카자흐스탄의 경기침체가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연쇄효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 이후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의 경제제재와 유가 급락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침체, 러시아로에 이주한 노동자의 송금이 감소, 그리고 2016년 카자흐스탄의 육류 및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의 수출 금지 등으로 경제는 2016년 3.8%로 둔화되었다. 이처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지속,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금·농산물·육류 등에 특정되어 있는 무역품목으로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늦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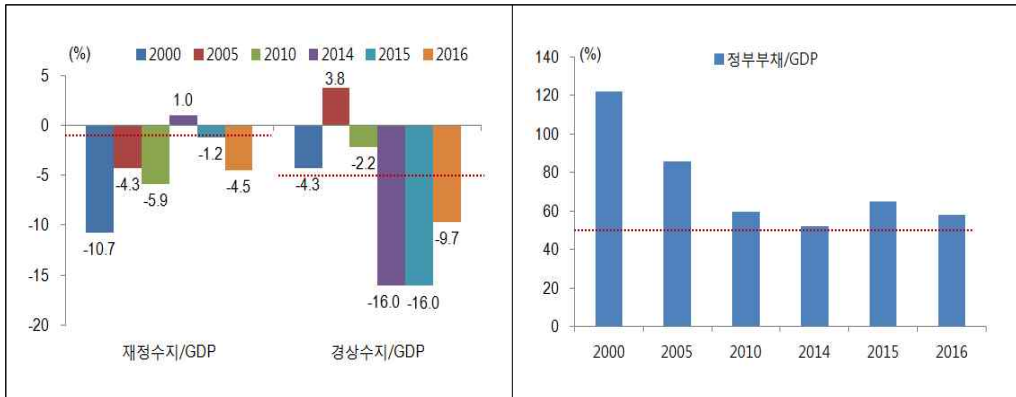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5.4	-0.2	-0.5	10.9	4.0	3.5	3.8	3.5
GDP	14	25	48	73	75	67	66	71
1인당GDP(명목)	278	474	875	1,270	1,267	1,109	1,073	1,140
1인당GDP(PPP)	1,649	2,116	2,719	3,198	3,318	3,398	3,520	3,654
수출			18	38	33	24	10	
수입			37	66	65	48	33	
경상수지	-1	1	-1	-10	-12	-11	-6	-0.8
러시아로부터 송금			11.3	21.1	20.6	12.5	4.6	

주 : ()는 PPP(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기준 1인당GDP

자료 : IMF, EIU,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키르기스스탄은 건조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과의 교역 감소로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키르기스스탄 건전성 지표



주 : IMF*는 재정수지/GDP 비중이 $\Delta 2\%$, 경상수지/GDP 비중이 $\Delta 5\%$, 정부부채/GDP 비중이 50%,를 초과할 때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
 자료 : IMF, 러시아 통계청

2.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전략

(1)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전형적인 에너지자원 의존 경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산업으로부터의 의존적인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발표됐으나, 실제 이행이 미진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장기화된 저유가로 인한 침체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거시경제 개선 및 기존 석유산업과 비석유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12월 6일 대통령령 No.1138 '경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동 대통령령 No.1138에서는 원유 및 가스 산업,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중공업 분야, 관광산업, 물류 및 대외무역, 안정적인 주택공급 사업,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전력·용수·가스부분의 인프라 개발, 의료 및 제약 산업 등을 주요 육성산업으로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우선적으로 석유화학산업, 농업, 의료 및 제약, 물류부분의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석유화학산업에서는 2011년부터 질소비료 공장과 석유화학공장

* IMF(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건설이다. 둘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개별농촌지원사업(ABAD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2017년 1월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Tedaruk)를 설립해 현대적인 농수산물 유통·보관·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FMSB), 농업부, 민간보험사가 공동으로 농업 보험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셋째, 의료 및 제약 산업 분야에서는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과 2018년까지 피랄라히 산업단지에 4개의 제약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부문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카스피해 바쿠항을 대체할 알라트(Alat) 국제 해상무역항을 건설할 계획이며, 알라트(Alat)항 내 가라다흐(Garadagh)지역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 조지아와 터키와의 철도 연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에서처럼, 아제르바이잔은 다양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이 산업단지 또는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할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및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업종에 대해 제한을 없앴으며,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 등의 요구는 없으며, 과실송금이 자유롭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부족, 관료주의, 부정부패, 미흡한 법제도, 정경 유착된 독점이 외국인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2)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 주도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에서 벗어나고자 국내산업 육성과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 산업다각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 들어 ‘사회 및 경제체제 전환전략 2000-2010’과

* 개별농가지원사업(ABAD)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농촌빈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농가별(또는 마을단위)로 농산물 생산, 포장 등의 설비를 개별 농가에 장기 리스로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디자인 유통, 수출 등의 사후 판로 개척도 지원하는 사업

** 러시아의 R-Pharm와 아제르바이잔의 투자 신탁회사인 AIC(Azerbaijan Investment Company) 및 Vita-A가 2020년까지 공장 설립, 2016년 4월 이란의 제약회사 Darou Pakhsh와 아제르바이잔의 AIC 및 Azersun는 제약공장 설립, 이란 TPICO와 아제르바이잔의 AIC 및 Azersun가 합작투자 형태 제약공장 건설, UAE의 VPS Healthcare와 아제르바이잔의 AIC는 제약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을 수립하여 원자재시장 호황을 배경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가스부문 발전 지속과 유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정책보다는 대외지향정책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무역을 부분적으로 자유화시켰다*. 나아가, 2010년에는 ‘사회·경제 장기발전전략 2011-2030’을 수립하여 첫째, 비교우위 분야인 원유·가스 부문의 지속적 발전과 현대화, 그리고 비에너지 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다각화 실현, 둘째, 민간부문 강화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셋째, 교통·정보·통신·사회 인프라 구축, 넷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2016년 9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유치, 민간부문 발전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사회·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산설비 건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가스 화학제품 생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가스관 건설, 신규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광물가공단지(complex) 건설, 아슈하바트-투르크멘바시(Ashgabat-Turkmenbashi) 고속도로 건설, 투르크멘바시 국제항만 건설 등이 중단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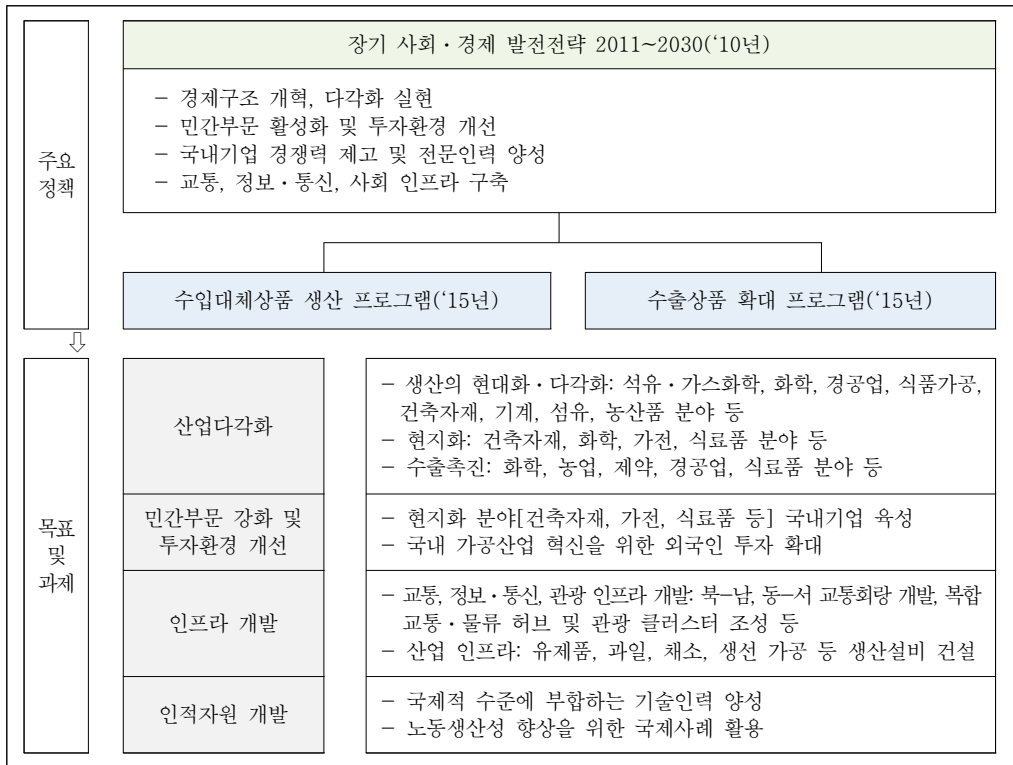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정책의 결정이 대통령 1인에 집중되어 있는 폐쇄적인 경제구조, 육상지역의 천연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열악한 철도·도로 등 물류 인프라, 작은 시장규모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무역제한을 통한 수입대체정책과 이중환율제를 유지하는 등 자립정책을 고수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자유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가 대부분의 경제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면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을 제정했으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함. 이머릭스, 「투르크메니스탄 WTO 가입 전망」, <http://www.emerics.org/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5481&systemcode=04>

** 박정호 외(2016),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09

*** Определены вектор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7 год, <http://turkmenistan.gov.tm/?id=11803>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자료 : 박정호 외(2016),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소련방으로부터 독립한지 25년이 지났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이 매우 미약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량도 부족하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아탐바예프(Almaz Atambayev) 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발전을 위해 2013년 1월 17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8년까지 연평균 7%의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해 GDP를 현재 2배에 달하는 1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업, 광업, 교통, 전력 등의 부문에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외국인투자 및 원조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사업은 광업과 농업 발전, 낙후된 인프라

라 건설을 우선적 육성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광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주요 수출품인 금과 몰리브덴 등의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둘째, 농업의 발전이다. 농업은 GDP의 20%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65%가 종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는 ‘자금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과 농기업에게 영농자금과 농산물가공 설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과 그 가공품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낙후된 철도,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하고자 한다. 재정이 열악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국민 대우 조항 강화,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보강, FDI(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최소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인과 합작과 단독투자가 전면 허용하고, 국영기업 민영화에도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비자, 노동허가 등 자동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책의 투명성 부족, 정치의 불안정, 사법기관의 독립성 결여, 법 집행의 미숙,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열악한 기업환경, 투자 장려와는 맞지 않는 세금제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부재, 과도한 행정절차, 협소한 시장 규모 등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3.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동향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이후 저유가와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역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교역액은 2001년 364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 1억 1,829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제르바이잔이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2008년 2억 5,000만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은 2009년 1억 5,000만 달러로 급감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2013년에는 수출액이 3억 1,100만 달러로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밸브, 철구조물, 공기조절

기, 펌프, 기타 정밀화학원료, 의약품, 의료용기기 등 의약 관련 제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등이며, 수입품은 포도주, 음료 등이다.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액은 2001년 1,467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 3억 6,177만 달러로 최고치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 교역은 국제유가가 하락에도 한국기업들의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등 석유화학설비 건설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섬유 및 화학기계, 전력용 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등이다.

한국의 對키르기즈 수출액은 2001년 2,000만 달러에서 2008년 1억 6,627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EU 등 서구의 경제제재와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교역액이 감소한 이후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8,032만 달러로 2014년에 비해 50% 감소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플라스틱, 고무 제품, 기계장비, 담배, 편직물,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연초류, 사무기기 등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인 알루미늄 껍 및 스크랩류, 식물성 한약재, 가죽, 버섯류, 채소류 등이다.

한·중앙아시아 4국 교역 동향

(단위 : 천달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1	3,637	83	14,674	1,901	20,010	616
2002	3,784	91	21,667	1,442	27,625	416
2003	10,968	1	36,441	946	32,239	352
2004	19,127	649	14,131	162	50,174	3,011
2005	32,240	103	6,449	1,330	66,517	1,590
2006	47,357	13	5,969	1,790	81,947	1,318
2007	130,307	315,648	6,884	696	125,611	1,372
2008	254,747	12,422	22,364	177	166,270	2,640
2009	149,557	9,035	66,262	749	100,094	1,197
2010	184,059	49	109,542	456	104,537	2,711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1	216,948	269	242,714	472	142,069	2,110
2012	282,067	87	193,509	837	161,927	211
2013	308,444	3,361	141,189	126	163,907	549
2014	269,573	54	192,987	156	155,882	8,462
2015	122,891	3,404	182,162	31	80,323	1,154
2016	118,289	337	361,773	92	63,763	556
2017.10	45,964	739	126,466	38	70,656	362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 투자 동향

한국의 중앙아시아 3국에 대한 투자는 1991년 외교 수립 이후 누적 기준으로 국가별로 1억 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투자는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누적으로 532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연도별 투자 비중을 보면 양국 정상 간의 교차 순방이 있었던 2008년에 가장 활발해, 총 투자액의 45%에 해당하는 239만 달러를 투자했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투자금액 기준 건설업이 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9.3%, 농업 5.6% 순이다.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 투자액은 매우 작으나, 2010년대 대형 플랜트 수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6월까지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 누적 투자액은 2014년 투자액 90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96만 달러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 투자가 저조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 제한적인 비자 발급, 법·제도 집행의 비일관성, 수익금 환전 및 송금 제한, 내국인 고용의무, 정보 부족 등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투자분야는 건설업(36.5%), 제조업(19.6%)이다. 한국 기업은 직접투자 이외에 2010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플랜트 수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칼키니쉬 가스탈항설비 플랜트(2013년 완공, 14억 8천만 달러),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2015년 완공, 4

억 7천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 정유공장 2차 현대화(2019년 완공 예정), 키얀리 원유처리 플랜트(2013년 수주, 2억 4천만 달러), 키얀리 석유화학단지(2018년 완공 예정, 34억 4천만 달러), 천연가스합성석유(GTL) 플랜트(2015년 수주, 39억 2천만 달러) 등을 수주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은 국립대 신축공사, 안전도시구축사업, 지적현대화사업 등 건설 및 IT 분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현대자동차·현대종합상사가 투르크메니스탄 도로교통부와 780억 원 대형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對키르기스스탄 누적투자는 9,363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對키르기스스탄 직접투자는 1997년 시작되어 2007-2010년 기간에 72.3%(6,765만 달러)가 집중되어 있다. 2006년까지 투자는 대부분 교민들의 정착을 위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며, 실질적인 투자는 2007년부터 건설업과 광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3국 연도별 투자 동향

(단위 : 천달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2006	5	0	10,252
2007	76	18	12,824
2008	2,393	0	33,038
2009	771	15	9,572
2010	87	0	12,220
2011	874	0	3,373
2012	38	0	1,956
2013	210	5	3,638
2014	213	900	2,569
2015	646	21	1,910
2016	11	0	1,402
2017	0	0	875
계	5,323	959	93,629

주 : 2017년 통계치는 2017년 6월말까지의 투자실적이 반영됨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중앙아시아 3국 업종별 투자 동향(누적)

(단위 : 천달러)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농업, 임업 및 어업	300	1,409	
제조업	497	9,863	58,229
광업	0	18,142	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70	0
건설업	4,155	34,172	229
도매 및 소매업	5	10,940	407
운수업	0	890	0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206	12,027	701
기타	161	6,116	247
합 계	5,323	93,629	59,813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4. 한·중앙아시아 3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높은 경제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해왔다. 2010년대 들어와 중앙아시아 3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경제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3국 모두 특정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탈피,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 축소, 신 경제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경제가 보유한 잠재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개방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1인에 집중된 정책결정 라인과 작은 시장규모, 그리고 낮은 투자 안정성 등이 한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 박정호 외(2016),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70

은 제조업 기반이 미비하고 현지국의 시장규모가 작아 한국기업의 진출을 유인하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아시아 3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지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제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정책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업다각화이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현지 정부가 산업다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부문에 진출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지국은 자국이 육성하고자하는 산업부문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혜와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한 차관자금과 수출·해외투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 방식을 조합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대상국 조건*에 포함되며, 현지국의 국가발전정책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분야**와 부합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시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여 양국과 경험은 확대될 것이다.

셋째, 한·중앙아시아의 정부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3국은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경제구조가 상존하고 있어 정부간 경제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협의체를 통해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3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중앙아시아 3국의 기업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한국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지의 경제 및 기업의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KOICA 또는 KOTRA 무역관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 3국의 국가발전전략 혹은 경제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경제협력 분야를 ‘선택과 집중’과 ‘현지 맞춤형’의 원칙에 따라 선정

*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12,735달러 이하인 국가(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 이하) 중에서 GDP, 인구 규모가 적어 경험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 EDCF 지원 분야는 ①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 ②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 ③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④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강명구·공석준(2007),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우리나라의 진출 방안’, 『유라시아 연구』, 제4권 제1호.

김상원(2010), “아제르바이잔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발전”, 『동유럽연구』, 제26권

박정호 외(16),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 리포트 -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각 연도

이시영·조영관(2010),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조영관·강명구 외(2011),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조영관(2015),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코트라 바쿠무역관(2016), ‘2017 아제르바이잔 진출전략’

[영문 자료]

EBRD(2015), Transition Report 2015–2016

EIU(2016a), Turkmenistan Country Report

[노문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и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
а(2010),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1–2030 гг'

[인터넷 자료]

<http://www.cbar.az>

<http://www.cbt.tm>

<http://www.imf.org>

<http://www.kita.net>

<http://www.mbkr.kg>

<http://keri.koreaxim.go.kr>

<http://news.kotra.or.kr>

<http://stat.gov.tm>

<http://stat.kg>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김득갑*

<문제 제기>

과거 실크로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인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再부각되고 있다. 27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동안 패권국으로 군림해온 러시아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온 미국 등 강대국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경제대국인 EU와 인도, 일본도 나름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견국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무엇일까? 2013년 10월에 처음 제시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대신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 서강대학교 국제경영학 박사
現 동서문제연구소 객원위원
前 삼성경제연구소 근무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뉴 그레이트 게임>

실크로드(Silk Road)는 중국의 漢 왕조 당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서양의 문물이 서로 오고갔던 무역 루트를 말한다.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여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문화와 종교의 전통을 혼합시킨 세계화의 진원지였다. 중국산 실크와 향신료, 비취, 기타 물품이 서양으로 가는 대신, 중국은 금과 기타 귀금속, 상아 및 유리 제품을 받았다. 실크로드는 로마제국에서 비잔틴 제국, 그리고 당나라 시대(618~907년)를 거쳐 천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십자군 전쟁과 몽골의 약진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쇠퇴하였다. 그리고 16세기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은 비용이 크게 저렴하고 빠른 해상 무역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역내 무역도 전 세계 국경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주로 의존해왔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중동을 보완하는 ‘자원의 보고’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중동 원유가 세계 에너지시장을 지배해 왔다면, 앞으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심찬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OBOR)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미국과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자원 투자 확대>

중앙아시아는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카스피해의 원유와 가스는 대부분 소 연방 시절에 건설된 노후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수출되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미비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독자적인 생산은 물론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동, 아프리카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에 나섰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너지 생산국이다. 중국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의 약 20%를 관리하고 있으며, 카스피해에서 신장까지 약 2,300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2006년에 개통하였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석유의 중국 수입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거의 10배 증가했다. CNPC(중국 국영 석유회사)는 카스피해의 카샤간(Kashagan) 유전에 8.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다른 중국 기업들도 악투베(Aktobe) 도시에 있는 여러 유전을 소유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하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D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스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러시아 가즈프롬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중국 수출은 2009년 전체 수출의 1%에 불과했으나, 2015년까지 거의 80%까지 증가했으며 수출 품목은 거의 모두 천연가스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인 터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체 수출의 5%만을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도 가스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2013년에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중국과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CNPC의 카자흐스탄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카라 발타(Kara-Balta)와 토모크(Tomok) 2곳의 정유공장에도 투자하였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패권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이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의 최대 50%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공급네트워크가 14억 인구의 중국은 물론 앞으로 13억 인구의 인도로 까지 확장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물론 도로, 철도, 산업 인프라에도 투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함께 카자흐스탄 국경에 있는 코호고스(Khorgos)에서 카스피해에 있는 악타우(Aktau) 항구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 중이다. 여기에는 코호고스의 허브 역할을 위한 산업단지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철도회랑인 유라시안 랜드브릿지(Eurasian Land bridge)와 중국-이란을 잇는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철도 회랑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논의 중이다.

현재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에 약 6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항만은 물론 경제회랑 건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베이징은 카슈가르(Kashgar)에 새로운 경제회랑을 건설 중이며,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야심찬 철도라인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천산과 파미르 고원이 위치해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면 무역과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비전과 전략>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내부 문제에 개입하기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출구를 막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수년전 이러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이 수정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구상(Silk Road Initiative)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경제 및 인

프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동 투자프로젝트와 지역 무역블록의 결성에 주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한 이후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외교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2014년 미국 외교전략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16억 인구의 인도, 파키스탄과 주변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지닌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해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미국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TAPI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외국 기업의 참여를 반대하여 투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한 17억 달러 이외에도 도로 건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2011년에 중앙아시아의 지역협력프로그램인 ‘알마티 컨센서스(Almaty Consensus)’를 창안하였다. 여기에는 무역장벽 축소, 수출능력 개발, 아프가니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간 국경운송조약(CBTA),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수력 에너지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전송하는 카사(CASA)-1000 프로젝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무관세 수출입을 허용하는 중계무역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카사(CASA)-1000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규모다.

<참고: 카사(CASA)-1000 프로젝트>

2016년 5월에 카사(CASA; Central Asia-South Asia)-1000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하였다. 카사-1000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잉여 수력 자원을 남아시아 국가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8년 말까지 구축되는 카사-1000 송전망을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전력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수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

트에 11.6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세계은행과 이슬람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CASA-1000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 CASA-1000

2.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생존전략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들 간의 경쟁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밖에 러시아, EU, 인도, 일본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외교력과 경제력, 자본 동원능력 등에서 열세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극동 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물류인프라 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이러한 구상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이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강대국들과 달리 장기 비전과 전략이 결여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0년 중후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높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GM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경쟁국 대비 교역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교역구조도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은 경제협력이 늦게 추진된 관계로 2010년에서야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교역 확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6년 기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3위 수입국인 반면, 수출시장 순위에서는 5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서 9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투르크메니스탄이나 한-카자흐스탄 교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 경제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아시아 5개국 대상 수출입 현황(2016년)

(단위: 천 달러)

	수출	수입	수지
카자흐스탄	453,126	223,513	229,613
우즈베키스탄	927,671	20,777	906,894
투르크메니스탄	361,773	92	361,681
키르기스스탄	25,964	488	25,476
타지키스탄	13,516	32	13,484
5개국 합계	1,782,050	244,902	1,537,148

자료: ITC.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중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액 대비 직접투자(FDI) 누계액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수출액 대비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액 대비 투자 규모가 저조하다. 이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어느 정도 현지투자가 이루어져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우호적인 통상관계 및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위해 현지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FDI 및 수출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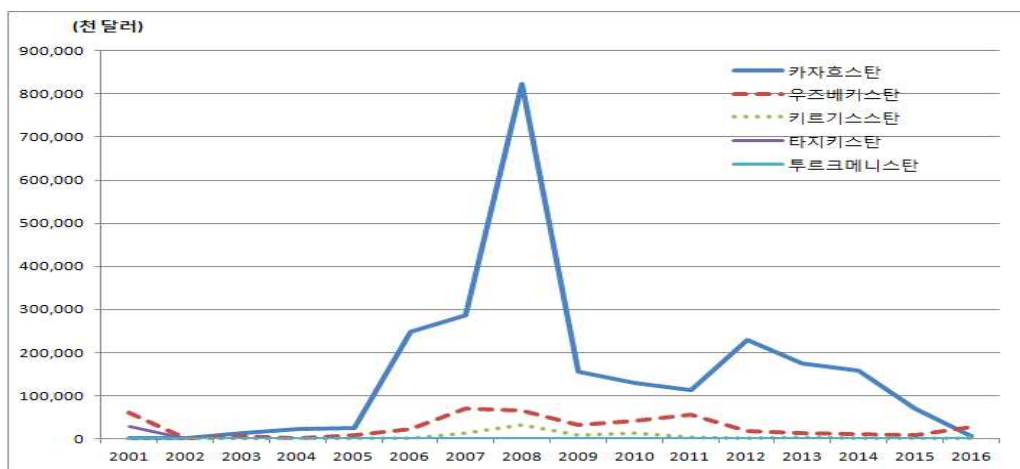
	FDI 누계(A)	2016년 수출액(B)	비율(A/B)
미국	88,321,924	66,462,312	1.33
중국	57,514,614	124,432,941	0.46
베트남	6,192,609	32,630,457	0.50
인도네시아	9,991,868	6,608,530	1.51
브라질	7,360,113	4,456,543	1.65
인도	4,480,301	11,596,286	0.39
러시아	2,568,483	4,768,751	0.54
캄보디아	2,389,629	572,856	4.17

	FDI 누계(A)	2016년 수출액(B)	비율(A/B)
미얀마	2,999,345	760,717	3.94
카자흐스탄	2,581,942	364,129	7.09
우즈베키스탄	677,204	927,671	0.73
투르크메니스탄	959	361,773	0.00
키르기스스탄	93,629	63,763	1.47
타지키스탄	59,813	17,804	3.3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수출입은행 DB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절대 규모가 작고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카자흐스탄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누계액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총 직접투자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 9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직접투자 누계액은 6억 7,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미미한 것은 기업 투자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에 따르면, 현지정보 부족과 투자타당성 예측의 어려움,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폐쇄성이 강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강력한 정부통제와 관료주의 행정으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법규 및 금융시스템 미비, 불투명한 행정처리, 소유권 보호체제 결여, 엄격한 비자 발급 절차 등이 한국의 투자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DB.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ODA 유입이 크게 줄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약정액 기준으로 2016까지 약 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무상 원조가 제공된 한국의 9번째 주요 受援국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유일한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되어 원조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ODA 지원 규모가 경쟁국 일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 발전시설 건설 및 의료센터 기자재 등을 위해 약 127억 엔에 달하는 ODA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ODA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의 입지가 원조부문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에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혹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략 방향>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후 국내 정치상황이 바뀌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부는 추동력을 재점화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전략(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New Eurasia Initiative')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므로 ‘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실크로드 구상,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교차 지역이기도 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교통·물류,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경제의 양대축(G2)인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전략은 추진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가급적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AIIB와 ADB 등 다자협 의체를 통해 추진하되, 해당국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높다. 특히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유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새로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New Eurasia Initiative)를 위한 유망 협력 대상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3개국은 산업다각화, 에너지산업 잠재력 제고, 기초산업 기술 유치, 선진기술 도입 등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적극적인 개방경제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융, 물류, ICT 인프라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지만, 제조업 기반은 물론 각종 인프라가 아직 초기 발전 수준이어서 선진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나, 교통·물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강대국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하우와 선진기술, 자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서 우리의 강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진출 유망 분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 즉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이다. 모든 국가가 산업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로부터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자본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도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다각화와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제조업 육성, 신 경제성장 동력산업 발굴, 경제특구 활성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은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과의 유망 경제협력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4월과 5월에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 잇달아 방한해 무역과 투자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현대화·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의 첨단기술 도입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중점산업 육성분야인 석유·가스, 석유화학, 기계 제작, 전자, 보건 및 제약, 식품, 농산물 가공, 에너지 효율, 교통 인프라 현대화 등을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였다. 에너지·플랜트 건설과 같은 전통 분야를 비롯해 섬유, 신재생에너지, 교통, 인적·문화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인프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은 에너지, 그중에서도 석유화학 플랜트, 화력 발전소 등 전통적인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자원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망 분야는 제조업 육성, 과학기술 이전, 교육, 교통, 의료·보건, 농업현대화, 문화·관광, 전자정부 등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사회·경제 발전전략 2011~2030’을 통해 섬유, 철강생산 등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 수요들 중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큰 분야로 녹색산업 부문과 농업부문,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부문을 꼽고 있다. 우선, 녹색산업 부문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및 지리 환경적 여건상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따라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등에 경제협력 수요가 존재한다. 현재 일본이 집중 공략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둘째, 농업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식량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현대화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 현안과제 중 하나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다각화와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여부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교육혁신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경험 전수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tra는 경제특구를 활용한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도입하고 자국 내 산업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6년 6월 현재 카자흐스탄은 10개, 우즈베키스탄은 3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중앙아시아 지역을 과거와 같이 자원개발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기보다 경제특구를 활용한 제조업 진출을 모색해 볼 만하다. 중국의 경우, 2013년 일대일로 정책과 실크로드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이후 과거의 자원개발 일변도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 지역을 인프라 개발과 자국 상품의 수출루트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작(Jizzakh) 경제특구와 나보이(Navoi)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 투자를 통해서도 물류 인프라 개선 및 활용으로 자국 상품의 수출,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국으로의 진출까지 모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인구가 많고 비교적 임금이 낮아 제조업 진출에 유리한데, 지작 경제특구와 안그렌(Angren)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인접한 내수시장 진출에 중점을 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음식료 및 가정용품 등 현지화 요구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 내수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제조업 진출보다는 경제특구의 비용절감 요인을 활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은 활용전략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국으로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 가입국 내 허브역할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Khorgos-Eastern Gate) 경제특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물류요충지로 향후 성장이 크게 기대되므로 물류관련 산업 투자가 유망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라면, ‘초기 진출의 어려움’과 ‘시장선점 기회의 상실’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한국의 진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진출 유망 분야를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는 성장잠재력이 무궁하다는 장점과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두 얼굴을 지닌 지역이다. 지정학적 상황과 투자여건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과의 경제협력 확대에는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중견국으로서 중앙아시아에서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

우선, 정부는 ‘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New Eurasia Initiative)’를 제시하고 중앙아시아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무역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발전전략과 경제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을 살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이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폐쇄적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절대적이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주도의 협력이 투자진출의 성공을 좌우한다. 따라서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에서의 논의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펀드 조성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기금 조성을 위해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ODA 자금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상>

Abstract

China is increasing investment in the oil and natural gas sectors of Kazakhstan and Turkmenistan, as well as investments in roads, railways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to build the Silk Road economic zone. The United States is also pursuing construction of a new silk road in South Asia, centered on Afghanistan. In addition, the EU, Japan and India are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South Korea's investment in Central Asia is small in scale and declining, as well as being overly concentrated in Kazakhstan, and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Central Asia is a two-faced region that has the advantages of growth potential but a poor investment climate. In terms of geopolitical situ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a leading role of government is absolutely necessary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the New Eurasia Initiative and actively promote the Central Asia strateg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trade environment by promoting negotiations for the conclus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Eurasian Economic Association (EAEU). Uzbekistan and Turkmenistan should strengthen their dialogue channels to improve their investment environment. Korea, which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other major powers, needs to strengthen its entry into Central Asia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order to compete with the great powers in Central Asia as a middle-ranking country,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more urgent than anywhere else.

Among the various cooperation needs of Central Asian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seek cooperation in the green sect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ctor, which are relatively feasible. And it is worth looking at the domestic companies to ent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the SEZ rather than looking at the Central Asian region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ource development as in the past.

중앙아시아 경제와 자원

김득갑*

<중앙아시아 개요>

1991년 12월 오랜 소련 지배에서 벗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하였다. 2016년은 소련 해체 이후 25번째 독립 기념일을 맞이한 해이다.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는 중앙아시아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열강들이 지역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쳐온 곳이다.

비록 중앙아시아 5개국은 유라시아 국가로 분류되지만, 정치 및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구조, 외부 세계와의 관계 등은 각기 상이하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큰 영토(272.5만km²)에 두 번째로 많은 인구(1,790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3,130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으나 영토는 44.7만km²로 세 번째로 크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두 번째로 큰 면적(48.8만km²)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550만명으로 5개국 중 가장 적다. 키르기스스

* 서강대학교 국제경영학 박사
現 동서문제연구소 객원위원
前 삼성경제연구소 근무

탄과 타지키스탄은 가장 작은 영토(20만km² 미만)에 각각 610만명과 87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 개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Astana	Tashkent	Bishkek	Dushanbe	Ashgabat
인구	1,790만명	3,130만명	610만명	870만명	550만명
면적	2,725천km ² (한반도 12.2배)	447천km ² (한반도 2배)	199.9천km ² (한반도 8/9)	143천km ² (한반도 2/3)	488천km ² (한반도 2.2배)
언어	카자흐어(공용어)	우즈베키스탄어 (공용어, 74%), 러시아어(14%)	키르기즈어 (공용어, 65%) 우즈베크어(14%)	타지크어(공용어) 러시아어	투르크메니스탄어(공용어, 72%), 러시아어(12%)
민족	카자흐인(66%) 러시아인(21%)	우즈베키스탄인(80%) , 러시아인(6%)	키르기즈인(65%) 우즈베크인(14%)	타지크인(84%) 우즈베크인(14%)	투르크메니스탄인(85%), 우즈베크인(5%)
종교	이슬람교(70%) 러시아정교(26%)	이슬람교(88%) 동방정교(9%)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20%)	이슬람교(90%)	이슬람교(89%), 동방정교(9%)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소론바이 제옴베코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의회	양원제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6). 2016 세계국가편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체제 전환이 진행 중으로 70년의 공산주의 통치와 중앙계획 경제의 역사적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최근 자료(Transition Report 2017-18)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경제구조 개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타지키스탄은 이들 국가의 중간에 속한다.

독립 후 지난 25년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경제발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상위 중간소득 국가군에 속해 있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저소득층 국가에 속해 있다.

중앙아시아 경제는 고유가 붐에 편승하여 10년 이상 높은 성장을 경험한 이후 자원 가격

의 하락, 무역 감소, 이민자 송금 감소 등으로 고전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는 자원에 의존한 경제에서 제도 개혁을 통해 시장 지향적이고 다변화된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개혁과 경제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외 지정학적 요인과 제도적 취약성, 그리고 경제구조가 독재 정치체제 및 불완전한 법적 제도와 상호 작용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합해도 인구 7,000만명, GDP 규모는 한국의 1/5 수준인 2,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중앙아시아 자원의 매력 증가, 중앙아시아와 인접해 있는 27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전략 등이 어우러져 중앙아시아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과 중동을 대신할 ‘자원의 보고’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경제지표(2016년)

	단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GDP	억달러	1,337	669	66	69	362
인당 GDP	달러	7,456	2,133	1,073	800	6,622
인당 GDP (PPP기준)	달러	25,167	6,561	3,520	3,007	17,481
경제성장률	%	1.1	7.8	3.8	6.9	6.2
소비자물가 상승률	%	14.6	8.0	0.4	5.9	3.6
실업률	%	5.0	4.9	7.5	2.4	11.0(2014)
재정수지	GDP대비 %	-4.1	0.4	-3.4	-9.2	-1.3
정부부채	GDP대비 %	21.0	12.8	58.1	41.8	23.9
경상수지	GDP대비 %	-6.4	0.7	-9.7	-3.8	-21.0
외환보유액	억달러	295	140	20	6.5	250
외채	억달러	1,638	168	82	55	4.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CIA, The World Factbook

<지리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으로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인 브뤼겔(Brugel)은 5가지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지정학적 불리함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오랜 정치·경제적 관계로 인해 세계경제의 3대 성장축인 북미, 서유럽, 동북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둘째, 모든 국가가 유라시아 내륙에 위치해 있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내륙 국경에 둘러싸여 있다. 소련 연방 시절에 건설된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통루트는 대부분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 과거 소련의 행정구역이 이제는 새롭게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으로 바뀌어 세관 통제와 비자 규제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은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 즉 종족간, 종파간,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는데, 이는 권위주의 정권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타지크 내전, 1990년과 2010년 오슈(키르기스스탄)의 인종 폭동, 2005년 인디잔(우즈베키스탄)의 대중 봉기, 키르기스스탄의 두 차례 혁명(2005년과 2010년), 그리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성전주의자들과 권위주의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대립이 지역 내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주변국들도 안보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어 역내 무역과 투자, 관광 분야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분쟁, 남부 코카서스내 갈등, 이란의 경제 및 정치적 고립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종과 언어가 이질적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조차 카자흐스탄 인구의 63%,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72%,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전체 인구의 80~85%에 불과하다. 투르크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어는 터키어 계통에 속하나, 타지크는 페르시아어 계통에 속한다.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지역 공용어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다. 19~20세기 초 영국과 러시

아는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인 바 있으며, 현재도 강대국들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공유된 역사와 언어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문화적 연대가 강하다. 또한 글로벌 정치 및 경제의 슈퍼파워인 미국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1~2014년 NATO가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당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했으며, 나토군 병력 수송 및 물류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지난 2세기 동안 중앙아시아를 지배해 왔지만, 최근 20년 동안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세워 중앙아시아에서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전통의 맹주인 러시아와 신흥 패권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으로 러시아 내 정치권 내에 민족주의와 수정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러시아어 사용 소수 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카라카르 파키스탄 자치 공화국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립 이후 경제성과와 산업구조 변화>

1990년대 전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거시경제 불균형과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인 구조적 왜곡을 수정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소련 시장의 부분적 상실(특히 군수산업 부문)과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중단을 감수해야 했다.

1995~1997년에 시작된 경기 회복세는 원유 및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세계적인 원자재 붐이 시작된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기복이 심했다.

1990년대 상반기에 생산량이 감소한 이후 PPP 기준의 1인당 GDP는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나라는 급성장하는 중국보다 PPP 기준으로 1인당 GDP가 높다. 카자흐스탄은 21세기에 처음으로 터키를 추월했으며 2015년에 러시아를 따라 잡았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느린 속도로 성장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1인당 소득 격차가 지난 15년 동안 증가했다. 다른 거시 지표들도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게 움직였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붐(2000~2008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높은 경제성장률, 8~1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재정 건전화,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특히 2014년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통화가지 급락(특히 카자흐스탄 텡지), 인플레이션 상승, 재정수지와 국제수지 악화, 그리고 성장 둔화를 겪었다.

전반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업이 부가가치의 약 4분의 1을 기여하고 있다. 총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데, 이는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총부가가치에서 농업의 비중이 16%인 반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이상 높다. 상황은 타지키스탄도 비슷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광업과 채굴산업이 성장했는데,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두드러진다. 중앙아시아의 제조업은 식품과 섬유와 같은 노동 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

해외 이주자들의 송금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송금은 저소득 가계의 빈곤 탈출은 물론 소비와 성장을 촉진하고 무역적자를 보전하며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주 노동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터키와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해외 이주자들의 송금액이 GDP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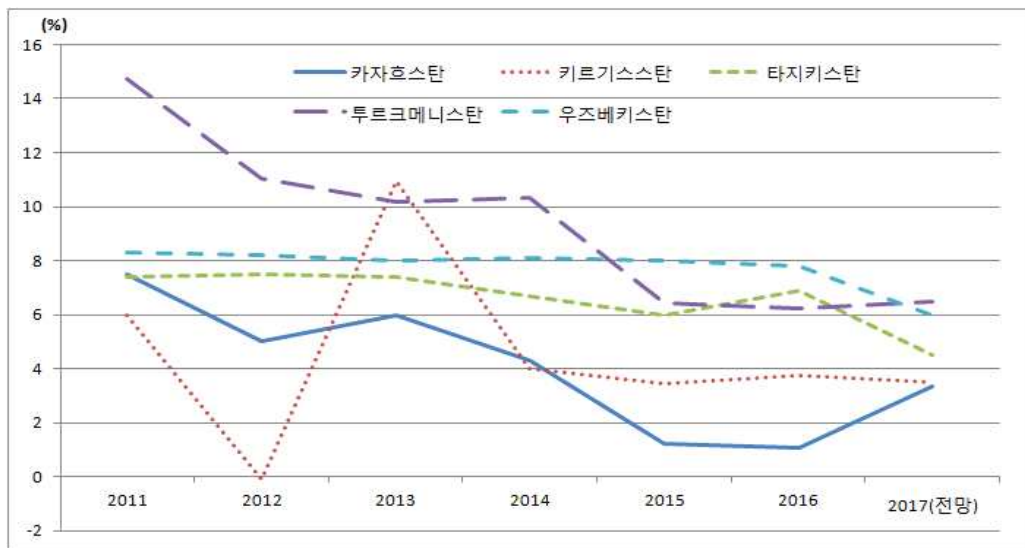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최근 경제 상황>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2014년 중반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였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는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오일 등 대체에너지 생산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자원 보유국은 자원가격 하락과 러시아의 경기부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으며, 자원 미보유 국가들도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14년 대비 2015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유라시아 전체적으로 2014년 1.1% 성장에서 2015년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2014~2016년에 중앙아시아 경제가 둔화되었으나, 국제 원유 가격이 2016년에 저점을 통과한 후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상황이 점차 개선되었다.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러시아 경제가 지난 2년간의 역성장(2015년 -2.8%, 2016년 -0.2%)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개선 여부가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하반기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3.2% 성장했던 세계경제는 2017년에 3.6%, 2018년에 3.7% 성장하는 등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종료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흥국 경제는 2016년 4.3%에 이어 2017년에 4.6%, 2018년에 4.9% 성장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앙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은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 2017년 이후 연간 3% 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0년대 초·중반의 경기호황 당시

보였던 7~10%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카자흐스탄 경제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과거와 같이 고공 행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소비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지출은 재정상태 악화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은 고정투자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고정투자 증가율은 연간 4%를 상회하며 2020년경에는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관련한 각종 물류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더불어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글로벌 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2018~2022년 기간에도 6% 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거에 보여주었던 8~9%의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제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이나, 천연가스나 면화, 금 등의 수출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992-2000년	2001-2010년	2011-2016년	2017-2022년 (전망)
카자흐스탄	-2.1	8.3	4.2	3.4
키르기스스탄	-1.3	4.1	4.7	4.6
타지키스탄	-3.8	8.0	7.0	4.1
투르크메니스탄	-1.3	13.3	9.8	5.6
우즈베키스탄	1.4	6.9	8.1	6.0

자료: IMF (2017). World Economic Outlook DB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전략적 요충지로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동을 대체할 자원의 보고>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에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중앙아시아는 중동 에너지를 대신할 ‘자원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2.4%,

천연가스 매장량의 4.3%, 석탄과 우라늄 매장량의 각각 4.2%, 17%를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해 세계 2위 규모의 우라늄과 석탄 등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우즈베키스탄도 카자흐스탄보다는 못하지만 천연가스와 원유, 면화, 그리고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원유와 면화도 생산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속하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지형 상 수력 자원이 풍부하고 금과 알루미늄, 면화도 풍부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자원 현황

국가	자원 현황	확인 매장량
카자흐스탄	▷원유(세계 9위, 카스피해 매장량의 1/2 보유) ▷천연가스 ▷우라늄(세계 2위 매장량) ▷석탄, 크롬, 아연, 납 등 광물자원	▷원유 350억 배럴 ▷천연가스 100조 큐빅피트 ▷석탄 345억톤 ▷우라늄 81.7만톤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원유 ▷면화 ▷금, 우라늄, 망간, 몰리브덴, 구리(銅), 아연 등	▷원유 5.9억 배럴 ▷천연가스 65조 큐빅피트 ▷석탄 33억톤 ▷우라늄 11.만톤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원유 ▷면화	▷원유 6억 배럴 ▷천연가스 100조 큐빅피트
키르기스스탄	▷금(Kumto 금광: 세계 최대 금광 중 하나) ▷수력 자원	▷석탄 9억톤
타지키스탄	▷알루미늄 ▷면화 ▷수력 자원	—

자료: ADB(2010). Central Asia Atlas of Natural Resources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고 있어 중앙아시아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미 에너지정보청(EIA) 등은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 의존적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유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16년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추가 급락이 없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인 원

유의 국제가격이 2014년 중반 급락한 이후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2017년까지 약 40~50달러 근방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가는 2016년 초반 배럴당 30달러 부근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최근 원유 가격의 상승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지속에 따른 미국 셰일오일 생산의 위축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 공급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가격은 2013~2014년에 비해 2016년에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했으나 2017년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면화 가격은 2015~2016년 하락하여 바닥을 다진 뒤 kg 당 1달러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리 가격도 2016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mt 당 5,000달러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많은 예측 기관들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 급락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원자재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원유 가격이 2017년 52달러, 2018년 55달러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원유와 가스 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량이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약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로 천연가스의 생산량 위주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IU도 2017년 에너지 가격 전망에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원유가격을 56.5달러로 전망하였고, 천연가스 가격도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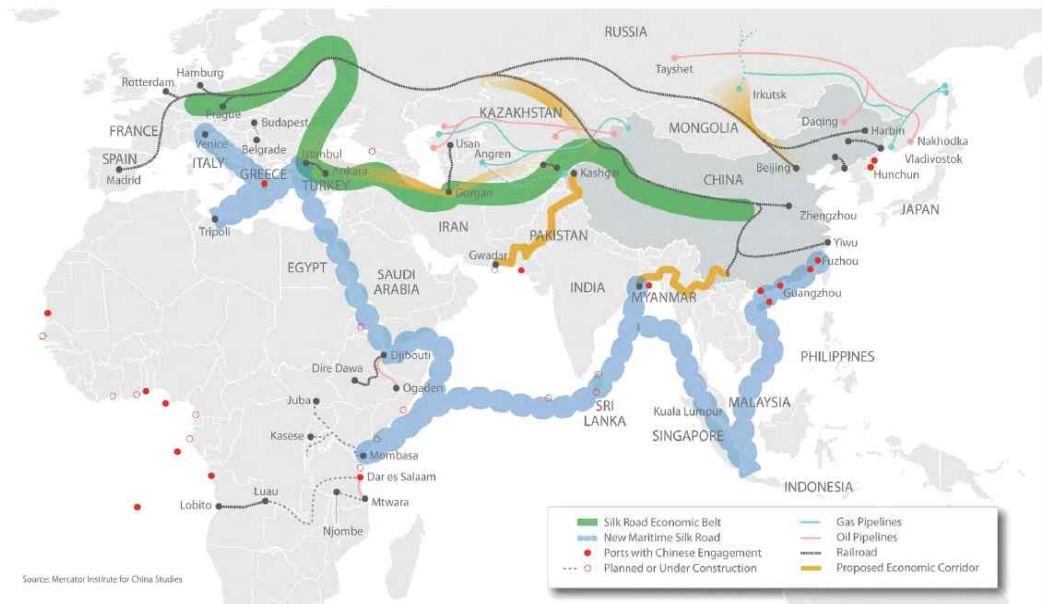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 ‘실크로드 경제권(Silk Road Economic Belt; SREB)’ 구상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처음 구체화하였다. 시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권을 위한 경제협력 과제로 ①정책협의 강화 ②도로 등 운송여건 개선 ③무역장벽 완화 ④통화협력 확대 ⑤인적교류 증대 등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 주석은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해상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3월 이들을 종합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에 번성했던 무역루트를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중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북부, 중남부, 북부 3개 벨트가 추진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부 벨트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거쳐 북부유럽에 이르고, 중부 벨트는 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지중해를 통해 남부유럽과 연결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재원 운용과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AIIB는 2015년 6월 1,00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은 25%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 지분보유국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총 57개국이 AIIB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AIIB는 러시아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치 외교적 취약성을 보완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크로드 펀드는 2014년 12월 400억 달러의 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라시아 내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2014년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30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과 150억 달러, 키르기스스탄과 30억 달러의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자료: Atlantic Council (2017). Silk Road 2.0

<운송 인프라 확충>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라시아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에 접해 있다. 과거 소련 시절에 건설된 운송망이 대부분 러시아와 다른 소비에트 연방 국가 간에 연결된 것이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년 동안 인프라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와 외부를 연결하는 운송 인프라가 건설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존재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란을 연결하는 남북 국제철도(North-South Transnational Railway)의 운행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추진으로 중앙아시아의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남북 국제철도는 내륙국이 많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외 연결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경제협력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남-북 국제철도’의 개통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을 연결하는 물류 운송루트가 구축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우젠(Uzen)-투르크메니스탄의 베레켓(Bereket)과 에트렉(Etrek)-이란의 고르잔(Gorgan) 등 3개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 루트로 2014년 12월에 최종 개통되었다. 각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이 자금을 지원하여 총 길이 925km의 철도 루트가 건설되었다. 앞으로 이를 통해 3국간 물류운송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철도는 단순히 3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대륙의 다양한 철도 루트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남-북 루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남-북 국제철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각국의 동-서 철도운송 루트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각국의 내부 운송체계와 국가 간 운송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이란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철도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는 도시는 베레켓(Bereket)과 에트렉(Etrek)이라는 두 곳으로, 이 중 베레켓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트랜스 카스피안 철도(Trans Caspian Railway)와 연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지난 2002년 러시아·이란·인도 등 3개국이 합의한 ‘남-북 운송회랑(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추진으로 인도의 뭍바이-이란의 반다르아바스-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복합 운송루트가 추진됨에 따라 이 루트와 연결되는 남-북 국제철도의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 운송회랑 건설에는 러시아, 이란, 인도 등의 3개국 이외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란과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북 국제철도의 개통으로 주요 수출품인 밀의 대외 시장루트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남-북 국제철도의 활성화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이란을 연결하는 남부 루트를 통해 중동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전통적으로 발전이 더딘 카자흐스탄 남부지방의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지방인 타라즈(Taraz), 침켄트(Chimkent) 등의 도시는 인구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발전 등이 더디게 이루어져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딘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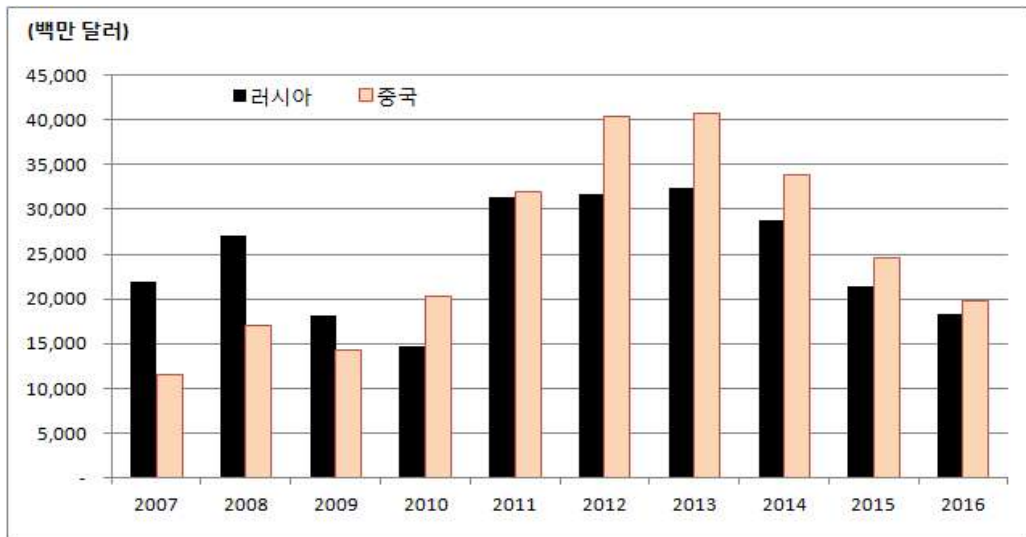
<무역과 역내 경제통합>

수출입은 중앙아시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원 중심의 수출에 특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수출 자원의 물량과 가격의 변화를 반영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나머지 3개국은 보다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별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교역 규모가 러시아를 추월하였다. 2007~2016년에 러시아의 교역 비중은 20.7%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중국의 비중은 10.9%에서 19.6%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역 추이



자료: ITC.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교역 규모로만 보면, EU(28개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에서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수입에 있어 EU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터키는 타지키스탄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 주요 수입국이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 이란 간에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5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된 후 중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열차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테헤란에 도착했는데, 해상 운송 시 소요되는 1개월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2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보면, 제도적인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과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키르기스스탄(1998년), 타지키스탄(2013년), 카자흐스탄(2015년) 등 3개국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구소련 공화국들이 자유무역과 사람의 무비자 이동을 유지하기 위해 1991년 말에 창안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투르크메니스탄은 CIS에 속해 있지 않다). 단일시장을 창설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만이 참여

하고 있을 뿐이다. WTO와 EAEU의 가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관세 행정 및 기술표준을 현대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교역국 현황(2016년)

(단위: 백만 달러,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1,950	100.0	16,912	100.0	5,268	100.0	3,931	100.0	12,858	100.0
러시아	12,639	20.4	2,726	16.1	945	17.9	1,036	26.4	902	7.0
중국	7,881	12.7	3,615	21.4	1,545	29.3	885	22.5	5,902	45.9
EU	24,175	39.0	1,859	11.0	319	6.1	179	4.6	1,990	15.5
미국	1,895	3.1	349	2.1	154	2.9	25	0.6	125	1.0
터키	1,469	2.4	1,242	7.3	281	5.3	315	8.0	1,664	12.9
일본	1,111	1.8	163	1.0	19	0.4	12	0.3	397	3.1
한국	677	1.1	948	5.6	26	0.5	14	0.3	362	2.8

자료: ITC.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한편, 정부간경제협력기구(ECO)에는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주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대무역협정은 이들 국가 중 일부에만 적용된다. 2000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무역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했지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만이 비준하였다. ECO 무역협정은 2003년에 체결되어 2008년에 발효되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타지키스탄만이 이 협정에 서명, 비준하였다(2016년 현재). 일반적으로 ECO는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데 그다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현황

구분	중앙아시아 5개국					기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WTO	○	○	○	×	×	우즈베키스탄은 옵저버 자격
CIS	○	○	○	×	○	발틱 3국,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구소련 연방국
EAEU	○	○	×	×	×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ECO	○	○	○	○	○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터키, 파키스탄 포함

흥미롭게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차원에서 이 지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반면,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기도 전에 국가별로 양자 무역관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CA)’을 체결하였다. 2015년에 EU와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에서 한 단계 더 격상된 새로운 개념의 PCA에 서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수출국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EU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EU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보다 관대한 GSP+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외연 확대>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은 출범 2년이 지나 최근 회원국 간 협력 강화와 외연 확대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AEU 내부적으로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신(新)관세법이 채택되어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EAEU의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외연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EAEU 4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정상들은 지난 2년간 회원국 간 수출입을 규정하던 관세법을 폐기하고 새로

운 관세법 도입에 합의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외국계 합작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본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는 합의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관세법의 특징은 1)IT 기반의 관세시스템 도입으로 통관을 위한 서류작업 최소화, 2)사전통관제도 등 회원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3)통관 오퍼레이터의 자격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을 통해 통관 시 혜택 차별화 등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EAEU 추가 가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읍서버 국가 및 FTA 대상국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몰도바가 회원국 가입의 前 단계인 읍저버 자격을 획득한 상태이며, 세르비아, 이스라엘, 중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EAEU 회원국들은 이란,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제안서 준비에 합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존의 경제정책에 아직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으나, 친러 노선으로의 정책 전환 및 EAEU 가입을 통한 경기여건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이 친러파여서 EAEU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EA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산 제품의 자국 유입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전례가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EAEU 가입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당면 과제>

중앙아시아는 일대일로 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로 호기(好機)를 맞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내륙에 위치해 바다와 단절되어 있다는 지리적 불리함과 운송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 외에도 중앙아시아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있어 구조적 한계와 제약요인들이 적지 않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은 대체로 국가 경쟁력이 약하고 디지털산업 경쟁력도 취약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내놓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도 카자흐스탄(190개국 중 36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매년 낮은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 현황

	국가경쟁력		디지털경쟁력		기업 환경		체제 전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카자흐스탄	57	4.35	52	6.79	36	75.44	—	4.30
우즈베키스탄	—	—	95	4.90	74	66.33	—	2.72
키르기스스탄	102	3.90	109	4.37	77	65.70	—	3.45
타지키스탄	79	4.14	—	—	123	56.86	—	2.66
투르크메니스탄	—	—	—	—	—	—	—	1.46

자료: WEF(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 ITU(2017).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7 : World Bank(2017). Doing
Business : EBRD(2017). Transition Report 2017-18.

이러다보니 부존자원이 풍부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는 중앙아시아가 그동안 세계경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원유 등 국제 자원 가격의 회복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경제가 성장국면에 진입해 있으나, 예전의 높은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민간부문의 활력이 부족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구조 개혁과 산업다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상>

Abstract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a total population of 70 million, and GDP is only one fifth of Korea's. Central Asia, on the other hand, is a resource rich in mineral resources as well as crude oil and natural gas, especially in the Caspian Sea. The rise in resource prices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Central Asian economy.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is highlighting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China is investing enormous capital to build a new silk road connecting Central Asia and Europe. Against this backdrop,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re competing against China through the New Silk Road Initiative and the Eurasian Economic Association (EAEU). In addition, the EU, Japan, and India are strengthening their entry into Central Asia.

In this situation, Central Asian countries are pursu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economic modernization policies in order to escape the resource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For this purpose, they are introducing technology and attracting capital from developed countries.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과의 협력 방안

오승구*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수는 약 3천여 만명 수준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규모를 자랑한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대 교역 규모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내 중요 협력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연결의 핵심인 실크로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로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다.

본고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환경을 평가하고 협력국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1. 정치·경제 환경

1991년 구소련 연방 해체와 함께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2016년 9월 2일 사망하기 까지 25년 동안 러시아와 서방 국

* 독일 괴팅겐대학교 경제학 박사
現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대우교수 및 (주) 바맥스 부사장
前 CJ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근무

가 사이에서의 실리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점진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사회·경제 체제 등 국가체제의 안정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중요 진출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변동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안정은 물론 사회, 경제적 안정과 함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리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가 2016년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정식 취임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어 카리모프 전 대통령 시대와는 달리 러시아와의 외교 및 경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점진적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제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보유국이자, 구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요충지이다. 게다가 금, 우라늄, 가스 등 천연자원이 무궁무진한 국가로서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 추정 매장량은 1,700톤으로 세계 10위, 석유매장량은 약 6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1.6조 입방미터로 세계 21위에 해당한다.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570억 입방미터에 이른다. 우라늄 10위, 텅스텐 7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이다.

원면을 포함한 농업이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농업국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다,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금, 텅스텐 등 비철금속 자원 등 천연자원 중심의 산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 증가로 7%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 경제 현황

1991년 독립 이후 경제 상황은 체제전환국으로서 경제 개혁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고 또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상황은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하나마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해 왔다고 평가된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GDP규모는 2016년 기준 616.8억 달러, 1인당 GDP는 1,920달러,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8.1%를 정점으로 2015년 8.0%, 2016년 7.8%로 미미하나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국 화폐기준) 2017년 경제 상황 역시 2016년과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수지의 경우 균형점에 접근해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도 내포되어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추정치)은 2013년 11.9%, 2014년 11.7%, 2015년 8.5%, 2016년 1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서의 물가상승률이란 점에서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주요경제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GDP	억 달러	578.5	586.0	616.0	616.8
1인당 GDP	달러	1,852	1,955	1,955	1,920
경제성장률	%	7.0	8.1	8.0	7.8
재정수지/GDP	%	2.4	2.2	0.9	0.0
소비자물가	%	11.9	11.7	8.5	10.5

자료: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Kotra(2017)

대외 경제 역시 저개발국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상수지 규모는 2013년 16.3억 달러 규모를 보인 이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해 2014년 4.5억 달러, 2015년 9천3백만 달러, 2016년 6천4백만 달러로 급락했다. 상품수지의 경우 수출입이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에서 적자규모는 2014년 18.3억 달러, 2015년 5.1억 달러, 2016년 5.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 수지 역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6.0억 달러, 2015년 26억 달러, 2016년 27억 달러 적자 상태다. 다행히 2017년 들어 상품수지는 1.3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로 약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트라, 수출입은행)

우즈베크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은 CIS 국가 37.5%, 비 CIS국가 62.5%이며, 국별로는 중국(15.9%), 러시아(14.7%), 카자흐스탄(9.3%), 터키(5.5%)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에너지 및 석유제품(13.6%), 식품류(8.5%), 화학제품(6.7%), 철 및 비철금속(5.7%), 면화(5.1%) 등

이다. 수입대상 지역 역시 CIS 국가 33.5%, 비 CIS국가 66.5%로 구성되고 주요 수입대상국은 러시아(19.8%), 중국(18.6%), 카자흐스탄(7.9%), 한국(7.1%) 등이다. 주요수입 품목은 기계 설비류(41.4%), 화학제품(17.5%), 식품류(11.9%), 철 및 비철금속(7.6%), 에너지 및 석유 제품(4.9%) 등이다. 이 자료가 보여 주듯이, 우즈베크의 교역상대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등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진입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인다. 물론 최근 들어 교역 상대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품목의 경우 천연자원과 연계된 상품 위주로 집중된 반면, 수입 품목의 경우 기계설비류 및 화학제품으로 전형적인 개도국 수준의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2013년 11.6억 달러,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6.3억 달러 수준이다. 총외채잔액은 2013년 106.8억달러, 2014년 133.9억 달러, 2015년 121.6억 달러, 2016년 142.7억 달러에 이른다. 2017년에는 179억 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으로 보면 2013년 18.5%에서 2015년 19.7%, 2016년 23.1%로 미미하나마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도 24.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출대비 외채상환액 비중은 동 기간 중 2.6%에서 3.7% 상승세다. 실물 및 금융 부문 모두 아직은 취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2> 대외 거래 및 외채 추이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31	454	93	64	159
상품수지	백만 달러	-524	-1,835	-505	-579	132
수출	백만 달러	13,504	12,903	11,355	11,111	12,152
수입	백만 달러	14,028	14,738	11,860	11,690	12,020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1,950	-603	-2,600	-2,700	-2,000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1,157	628	628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0,605	11,502	13,814	17,655	17,911
대GDP비중	%	18.5	18.4	20.9	25.6	24.3
단기 외채	백만 달러	342	709	805		
DSR	%	2.6	3.0	3.5	3.7	

자료:코트라, 수출입은행

(*) DSR= 외채상환액/총수출

외국인 투자 금액은 2013년 30.1억 달러, 2014년 29.5억 달러, 2015년 33.0억 달러 수준으로(2016년 추정치 33.5억 달러) 아직은 외국인 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5년의 외국인 투자를 세분해 보면, 우즈벡 정부보증 차관이 8.9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약 27%를 차지했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4.1억 달러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외국인 투자는 중국 10.8억 달러, 러시아 6.8억 달러, 한국 5억 달러 등으로 기타 국가들의 투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2012년 기준, 코트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등은 8,2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부문별 외국인 투자를 보면 광물, 석유 및 가스, 화학 금속 등 천연자원 연계부문인 1차 산업 부문이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산업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시스템, 통신, IT, 교육, 위생시설, 건설 및 건축, 운송 등의 분야도 주요 투자 대상 부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론 미미하나마 농업 및 수자원, 소비재, 기계 공학, 전자 기술, 항공 산업 등에도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주요 산업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산업으로는 자동차, 자원 및 에너지, 섬유산업을 들 수 있다. 물론 농업도 중요한 산업이지만, 여기서는 3가지 산업만 간략히 살펴본다.

A) 자동차 산업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내수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내 인근 주변국 및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공업성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으로 운영되면서 우즈벡의 주요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자동차공업성은 승용차 부문(GM Uzbekistan, 미국 GM 합자), 버스 부문(SAM Auto, 일본 ISUZU 합자), 트럭 부문(MAN Auto, 독일 MAN 합자) 등 자동차 생산 3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에 35개 이상의 산하 부품 생산기업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규모는 약 57억 달러, 내수시장 점유율 약 9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내수 판매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업성은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CIS 시장 개척 및 확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대 우즈벡 수출 중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제품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우즈벡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현재 GM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중인 한국기업은 약 300여개사, 현지합작 기업(부품기업 중심)수도 17개사에 이른다.

2) 자원 및 에너지 산업

우즈베키스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스,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그러나 탐사 자원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생산량 확대 및 수출 물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과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즈벡 정부는 서방기업과의 협력보다는 CIS,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신규개발 탐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수르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동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와 한국기업 컨소시엄간 50:50의 합작회사를 설립해 아랄해 인근 수르길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가스 화학 콤플렉스를 신규 설립하고 운영(25년간)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완공하고 상업생산에 돌입해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코트라)

3) 섬유 산업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방 시절 면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세계 6대 면화생산국이자, 5대 면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2015년 기준 면화생산량은 335만 톤에 이른다. 최근 들어 목화 수요가 세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가격하락까지 겹쳐 우즈벡 정부는 2020년까지 원면생산을 300만톤 까지 감축하고 그 대신 채소 및 과일생산 확대, 종자사업 등을 육성하는 등 농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화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높아 향후에도 섬유가공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실제 우즈벡 정부는 단순한 원자재 수출구조를 탈피하고자 제조업 및 2차 가공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한테 염색, 가공, 봉제 등 가공 기술전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슈켄트 섬유대학 내에 ‘한-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 파크'를 조성하기로 합의해 2016년 5월 착공하였으며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건물 조성 및 설비 구축 뿐 아니라 인력양성 및 기술 전수, 양국 섬유 기업 간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섬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우즈베크의 풍부한 원면을 활용하기 위해 10여 개사가 진출해 내수시장 뿐 아니라, CIS, 유럽,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4. 우즈베크 정부의 최근 정책과 규제 문제

최근 우즈베크 정부는 중장기 정책(2015-2019)을 수립 시행 중이다. 주요 전략적 목표는 ① 사유재산 제도 강화 ②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및 각종 규제 장벽 제거 ③ 민영화 확대 ④ 경제구조 개혁, 현대화 및 다양화 ⑤ 원부자재, 완제품 현지 생산 확대 ⑥ 핵심 인프라 건설 및 재건 ⑦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다.

그동안 우즈베크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소비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 정책을 강화해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정책에 힘입어 자국산 소비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9.2%에서 20%까지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즈베크 정부는 국산화 정책을 좀 더 세부화하고 구체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1,200여개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민영화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선진기술 및 자본 도입을 통해 주요 소비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내생산 확대 및 생산성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투자 포럼을 개최하고 4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도 발표하였다. 부문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석유화학분야 54개, 전력 36개, 화학분야 25개, 기계분야 77개, 건설자재분야 11개, 경공업분야 79개, 식품분야 304개, 제약분야 22개 프로젝트 등 총 900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코트라)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 및 재건 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300개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 교통망의 확장 및 현대화 작업으로서 2,700여 km의 자동차 도로, 960km의 철도 및 885km의 전철화, 8,600km 수로 및 576km에 이르는 하수도 건설 및 재건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을 위해 25,300

km에 이르는 송전망의 현대화, 광케이블 네트워크 1.7배 확충과 함께 이동통신망 범위를 국토의 80%에서 95.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수를 2,7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지국도 5,00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건설 산업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 산업은 토목, 설계, 시공 분야는 물론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 이르기 까지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공장 신규 건설, 재건 및 현대화 사업, 정비 사업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확대도 중요한 분야이다. 2020년 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을 48.7%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농촌지역의 서비스 산업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전자 금융, 신규 결제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현대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의료부문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우즈벡 정부는 2015년 9월1일부터 수입대체산업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 화학, 일부 펌프류 등에 대해 관세 및 소비세를 대폭 인상했다. 특히 자동차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각각 관세 및 소비세 130%, 100%의 고율의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자국 상품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물류비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인상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변국 대비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 외에도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소모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진출에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패한 관료사회의 후진적 관행이 만연된 상태다. 게다가 WTO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무역기술 장벽 신설 및 개정 시 관련 기업들에게 사전 통보되거나 인지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리금의 송금 보장, 국방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어 규정상으로는 개방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환시장 악화와 함께 과도한 정부통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수입 판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환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화 환전 프로세스도 거래은행에 신청하고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외국인투자자들의 환전업무 및 과실송금 지연 등 금융 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기업간 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현금 보유 및 결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달러 매출의 경우 기업에 따라 50%를 은행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따라야만 한다.

이처럼 우즈벡 정부는 중장기 정책을 통해 경제개혁과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혼재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 진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1992년 1월 29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참고: 북한은 1992년 2월 7일 수교) 외교관계 수립과 함께 양국 간의 주요협정 체결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과학기술 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 협정, 항공협정을 수립한 이후 1998년 이중과세 방지협약, 2006년 사회보장 협정, 2009년 외교관여권 사증 면제 협정, 2011년 항공 협정, 2013년 관광협력 협정, 2014년 무상원조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질적인 교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 공동위 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산업, 중소기업,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경제협력 방안 등을 의제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먼저 경제 협력의 초보 단계인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3년 20억 달러, 2014년 21억 달러, 2015년 13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규모는 2008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3년 19.7억 달러, 2014년 20.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2.8억 달러, 2016년 9.28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등이 수출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건설 중장비, 철 구조물 등 기자재 수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제지원료, 천연섬유사, 기호 식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수입 규모는 2013년 5,3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2014년 2,700만 달러, 2015년 1,600만 달러, 2016년 2,070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펄프, 면사, 면직물 등이 수입액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식물성 한약재, 과일류, 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무역협회)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도 아직은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총 투자 규모(누적)는 6억 4,275만 달러에 머물고 있고, 총 진출 법인 수는 245개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투자 규모가 2013년 1,305만 달러, 2014년 1,161만 달러, 2015년 291만 달러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신규법인 진출수도 동기간 중 17개, 14개, 5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활동은 제조업 투자가 9건 2,620만 달러를 보이고 그 외 진출 부문은 자원 및 에너지, 운수 건설업, 전자/통신, 자동차 및 중장비, 금융, 물류, 도매 및 소매업, 기업서비스 등으로 매우 한정된 상태다.(한국수출입은행) 이는 양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산업 구조 및 발전도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 들어 투자건수는 21건 투자액은 2,680만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의 대외 무역 다변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한류 영향 등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추이>

	2013	2014	2015
수출(백만 달러)	1,968	2,032	1,284
수입(백만 달러)	53	27	16
투자규모(천 달러)	13,054	11,614	2,908
신규법인수	17	14	5

자료: 코트라

6.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방안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적 개혁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전반적인 경제 수준 취약, 물류 및 유통 인프라 미비, 제조에 필요한 연관 산업 미발달, 숙련공 등 유능한 인력 부족 등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구소련 시절의 관료주의적 성향이 저변에 깔려있는 상태에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만연하고 통관 및 관세 부과 등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실상이다. 실제 국제투명성 기구(TI)가 2015년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PI)가 전체 167개국 중 153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이 외국인투자 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순위는 189개 국 중 87위(2015년 기준)로 하위권이지만, 전년 대비 54계단 상승하며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환경은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8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는 등 친한 성향을 보여 왔고, 유력한 정 재계 인사 등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질 좋고 저렴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파업 등 노동 쟁의 발생 빈도도 매우 낮은 상태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로 확보한 재 원을 산업다각화 및 인프라 투자에 적극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즈베크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우즈베크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정책을 활용해 우즈베크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일반 소비재 수출도 중요하나, 우즈베크 정부의 국산화 프로그램, 민영화 정책 등 현지 주요 정책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즈베키스탄은 2015-2020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410억 달러 규모의 산업 부문 구조개혁, 현대화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즈베크 정부는 농식품, 자동차, 섬유 등 주력산업 수출확대정책에 주력하고 있어 우즈베크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지원 등 사회부문 예산 확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가속화, 의료기술, 검진센터,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의료부문 투자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우즈베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민관이 협동해 우즈베크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금융 기구와 우즈베크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따라 입찰 취소나 사업 중단 등의 위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둘째, 아직은 경직되고 불투명한 행정 관행과 정보 획득 난관 등의 애로사항이 만연한 상태이므로 유력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특성상, 민간은 물론 정관계 인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카리모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관계 및 재계에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가 상당히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차세대 리더그룹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 강화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0년대 중반 대우 그룹은 자동차, 통신, 섬유, 전자, 은행 등 주요 산업 진출함으로써 우즈베크 국가 산업기반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대우 자동차 진출 이후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진출, 그리고 양국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른 다방면의 교류 등으로 우즈베크스탄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정착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K-Pop, 드라마 등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까지 상승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저변에 더욱 확산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 사회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국가개황

대륙성 사막 기후를 보이고 있는 우즈베크스탄의 국토 면적은 44만 7,400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2배 크기에 이른다. 인구수는 2016년 기준 3,212만 명 수준이며, 민족 구성은 우즈베크인이 84%, 러시아인 2.8%, 고려인 0.8%, 기타(12.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우즈베크 언어이나, 러시아어도 통용되며, 타지어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종교의 경우 이슬람교가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가 9%로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다.

1991년 9월 1일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우즈베크스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로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2016.9.2)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대행체제로 운용되다가 2016년 12월 14일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100석, 하원 150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주요정당으로서는 자유민주당(LDPU)과 재건민주당(NDP)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사회 개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평균 수명: 68세(2014), 절대 빈곤 계층 비중: 14%(2013), 중등교육 취학률: 95%(2011), 식수 접근률: 87%(2012), 이동통신가입자수: 백명당 73명, 인터넷 사용자수: 백명당 43명(2015), 1인당 에너지 소비량(석유 환산):1,419kg

Abstract

Proposal for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Uzbekistan

Uzbekistan became independen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91, and is a country rich in natural resources, including natural gas, raw cotton, gold, and tungsten. With its population of approximately 32 million, it boasts the largest population in Central Asia. Uzbekistan is at the center of the trade routes that connected Europe and Asia through the Silk Road, and has great potential as a beachhead to enter the Central Asian market.

Uzbekistan is still undergoing political transition. Its economy depends greatly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nd its neighbors in Central Asia, and it remains exposed to economic instability arising from the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among its neighbors. Compared to its neighbors, Uzbekistan is relatively stable and its market economy is well established. Nonetheless,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Uzbekistan have not met expectations. The lingering presence of socialist administrative practices, delays in privatization, and outdated financial systems are acting as stumbling blocks in achieving economic growth. On top of that, foreign investment activity is limited due to excessive government controls and weak foreign exchange markets. This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 of the slow pursuit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for the sake of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e lengthy 25-year reign of former President Islam Karimov. These negative factors do not yet show significant signs of improvement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However, if these negative factors are overcome, Uzbekistan is set to become Central Asia's largest market.

The Uzbek government is focused on moving beyond its current economic structure of exporting simple raw materials, and is seeking to nurture manufacturing and secondary processing industries that provide added value by reprocessing raw materials. It has also established and is pursuing a mid to long-term economic policy (2015-2019) whose core aims are protection of SMEs, removal of regulatory barriers, expansion of privatization, economic and structural reforms, expansion of local production of finished products, and

building and refurbishing of key infrastructure. These plans including expansion of the highway network, building and refurbishing of water and sewerage networks, expansion of the power grid, and expansion of fiber optic cable networks, as well as modern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through introduction of online finance and settlement technology, and expansion of the healthcare sector.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Uzbekistan in 1992, and since then, has become Uzbekistan's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After Daewoo automobiles entered the Uzbek market, investment came from both large firms like Samsung and LG, as well as SMEs. At the same time, recognition of Korean culture has increased on the growing popularity of K-pop, Korean dramas, and Korean food in Uzbekistan, leading to increased preference for Korean products. Korea needs to leverage these conditions to invest in trade and to broadly expand economic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nergy resources, construction, and public health & welfare.

More than anything, it is critical that Korea sufficiently recognize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of the Uzbek government, and support the government so that these policies are achieved. At the same time,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jor projects being financed by the Uzbek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is enables stable pursuit of projects through securing of stable project budgets. As examples, Korea can participate in the building of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that use ICT, and invest in the healthcare business, including medical technology and enhancement of workforce skills among nurses, etc.

On the other hand, administrative practices in Uzbekistan are still rigid and opaque, and difficulties,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remain widesprea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out powerful local partners, and plan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the private sector, building and leveraging local networks including in the political sphere, will help maintain continuous cooperative relations on a stable and long-term basis.

<참고자료>

Kotra,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2014년 해외출장자료

Kotra,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2017년 해외출장자료

Kotra, 2008 우즈베키스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6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Kotra, 2017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베키스탄 데스크 (인터넷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 통계자료(각년도)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25년과 신북방정책

윤성학*

1. 서론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19세기말 러시아와 영국이 ‘거대한 게임(Great Game)’을 전개한 지역이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한편, 카스피 해 연안과 키질쿰 사막 등 내륙 지역의 원유가스 등 전략광물 자원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장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고통스러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거쳤으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에 들어섰다. 2002년~2007년 기간 동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은 8.8%,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14.5%의 높은 복합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원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켜 2009년과 2010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

*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現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연구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등 근무

였으며 2014년에도 유가 하락으로 중앙아시아 경제는 침체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 등 자원의존적 경제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경기가 좌우되어 경제가 불안정하므로 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산업다각화, 산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도로, 철도,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표 1> 중앙아시아 국별 주요경제지표와 성장 전망

	면적	총인구	인구밀도	1인당 GDP	GDP	경제성장률(%)	
	Km ²	천명	인/Km ²	달러	억달러	2015년	2016년
카자흐스탄	2,720,000	17,750	5.7	10,188	1,769	1.0	1.0
우즈베키스탄	450,000	31,680	61.6	1,944	616	5.2	7.0
투르크메니스탄	517,000	5,291	10.3	16,700	899	6.5	10.0
타지키스탄	140,000	8,330	48.9	2,900	243	6.0	6.0
키르기스스탄	200,000	6,010	26.9	1,432	66	-0.8	5.0
전 체	4,000,000	66,361	42 (평균)	6,632 (평균)	3,593 전체	6.4 (평균)	6.8 (평균)

자료 : 2015년 기준, World Bank, IMF 종합하여 재구성.

2017년은 한-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수교 25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는 수교 25년 동안 정상들 간의 방문이 약 30차례 진행될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2년 수교 25년 이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관점에서 향후 정책목표와 시행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2.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25년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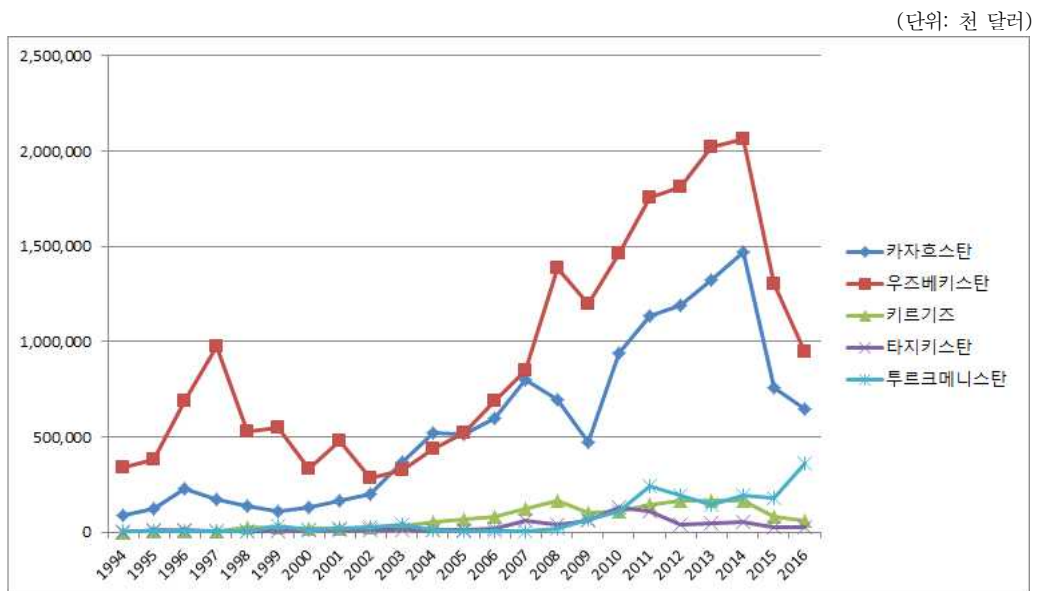
1) 무역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지만 1992년과 1993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입물품에 대한 무관세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통계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94년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는 약 2억7천만 달러인데, 우즈베키스탄이 2억3천7백만

달러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2014년보다 약 1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국가별 비중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이 약 45%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외무역 전체 규모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량은 총 교역량의 0.3~0.5%에 머물고 있는데, 수출은 총수출의 약 0.5%, 수입은 총수입의 0.1%에 불과하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승용차, 편직물, 건설 중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알루미늄 합금철, 우라늄, 면사, 천연섬유 원료 등 자원 부문에 집중해 있다.

<그림 1>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 현황



출처: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2017.11.24.)자료: KITA(2012).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은 증가하였는데, 2008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였다. 2016년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무역수지는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관련제품(승용차, 부품, 원동기 등)으로 총 수출액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제외한 주요수출 품목으로는 합성수지, 편직물, 기타가구, 아연도강판 등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도 시기적으로 부침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부터 무역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카자흐스탄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감소하였지만 이후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교역은 또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9년 4.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2016년 11억 달러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교역 확대 가능성은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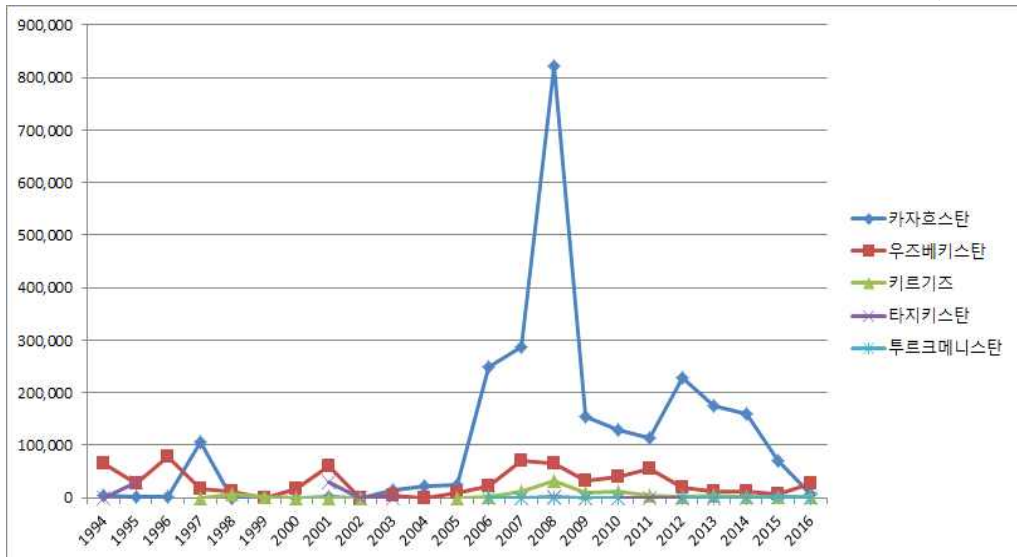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의 특징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와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고 반면 중앙아시아로부터는 원자재인 비철금속, 면제품 및 가죽 등을 수입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완성형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수입은 초기에는 원면과 알루미늄 재료 등 1차 원자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면사, 면직물 등이 증가하고 반면 원면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물류 문제 때문에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글로벌 상품시장이 확대되고 한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원자재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

199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의 총누적액은 약 33억 달러 규모이다. 이같은 금액은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금액의 0.7%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1990년대 대우의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전자, 면방 분야 투자를 들 수 있으며, 2000년대에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부동산, 자원개발 투자가,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대한 금융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석유화학 플랜트가 진행되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검색일: 2017.11.24.)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는데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중앙아시아 투자액 가운데 95%에 달한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는 주로 건설, 금융,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다.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 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출범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는 삼성물산의 카작무스(Kazakhmys)의 위탁경영이다. 삼성물산은 1996년 카작무스의 전신인 제스카즈간 동광 콤비나트(일종의 구 소련식 생산 클러스터)를 5년간 운영하면서 이 부실기업을 런던 증시의 상장 회사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은 동일하이빌이다. 동일하이빌은 2005년부터 아스타나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총 3,000여 세대)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알마티 현지에서 TV 및 세탁기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의 또 다른 핵심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지만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의 대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 분야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내수, 제조, 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미진한 상태이다.

일찍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가능성을 높게 본 대우는 투자 여건이 어려웠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에 적극 진출하였다. 대우의 전략은 우즈베키스탄을 CIS 및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생산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였다. 대우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Uz-Daewoo Auto는 아사카공장을 단순한 CKD(조립생산) 기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대우는 또한 세계 5위의 원면 수출국으로 풍부한 현지의 원면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면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였다. 대우는 페르가나주에 DTC 면방공장을 1996년 설립하고 이후 페르가나 갑을, 부하라 공장 등을 증설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면방업체가 되었다. 대우텍스타일의 성공 요인은 사업 착수 이전에 토지 사용권, 세금, 원료 구입조건 등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경영상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또한 100% 단독투자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간섭 없이 계획 생산량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3) 자원개발과 ODA

한국은 세계 5위의 석유소비국이며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전체 원유수입의 약 80%가 분쟁위험이 높은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중앙아시아 등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물의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석유가스 탐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심 지역으로 2006년 잠빌 유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6년 아랄해 가스전, 나망간추스트 유전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상 19, 20, 21 광구에 대한 지질자료 검토 결과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미국, EU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이 지역 자원개발의 성과는 미비하다. 2016

년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일부 철수하면서 자원개발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표 2> 한국의 중앙아시아 석유개발사업 참여 현황

국 가	광구/사업명	참여기업(참여지분, %)
카자흐스탄	사트라마바스	KS에너지 25%, PLA 25%
	웨스트 보조바	PLA 28%, KS에너지 25%, 세하 25%
	Block 8	SK에너지 50%, LG상사 30% 등 100%
	Block 36	지엔텍리소스 50%
	잠빌	석유공사, SK에너지, LG상사 등 27%
	ADA	석유공사 22.5%, LG상사 22.5%
	에키즈까라	석유공사 25%, LG상사 25%
	아이르샤글	대한뉴팜 17%
	살바잘가노이	KS리소스 65%
	남 카르포브스키	석유공사, GS홀딩스, 경남기업 등 50%
	블라디미르스카야	정우개발 65%
	라브닌노예	효산 12.5%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공사, 롯데대산유화 등 50%
	35&36	대우인터내셔널 100%
	아랄 해	석유공사 10.2%, 포스코 9.8%
	우준쿠이	가스공사, 호남석유, STX 등 50%
	나망간추스트	석유공사, SK가스, 삼천리 등 100%

자료 : 조영관 외(2009),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67.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에서의 대외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는 ODA(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지식경제부 산하 K-Exim Bank(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유상으로 지원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 대외원조대상국의 선정은 개발도상국의 국민총생산 규모,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교역규모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며, 중앙

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중점지원국가에 선정되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EDCF 자금은 1990년대 중후반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쓰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부문과 교육정보화사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EDCF 자금은 다양한 경제·사회 인프라 부문에 지원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EDCF 차관을 통해 IT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과 교육 인프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EDCF 자금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되었다.

3. 중앙아시아 국가 별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1) 우즈베키스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초반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일본, 중국 등 다른 경쟁국가가 갖고 있지 못한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교류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양국 간에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자동차, 섬유 분야에 중점을 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그 핵심은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정책이며, 이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그 파트너로 높은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을 선택하였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해왔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시절부터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 중반부터 한국은 러시아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은 증가하였는데, 2008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였다.

2016년 양국 교역액은 전년대비 27.1% 감소한 9억484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여 온 교역액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27%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 산업 경기 악화로 2016년도 우즈베키스탄 승용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52.5% 감소한 8만 8150대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 또한 동반 감소하였다. 또한 경기 악화와 현지 생산 증가에 따라 폴리프로필렌 대 한국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62.7%)하였다.

<표 3> 한-우즈베키스탄의 연도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1,766.5(2.8)	1,968.0(11.4)	2,032.5(3.3)	1,284.0(-36.8)	927.6(-27.8)
수입	42.4(6.4)	53.0(25.3)	27.4(-48.5)	16.1(-41.0)	20.7(28.7)
교역	1,808.9(2.9)	2,021.1(11.7)	2,059.8(1.9)	1,300.2(-36.9)	948.4(-27.1)
무역수지	1,724.1(2.7)	1,915.0(11.1)	2,005.1(4.7)	1,267.9(-36.8)	906.9(-28.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 (검색일: 2017.11.08.)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지만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의 대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 분야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내수, 제조, 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미진한 상태이다.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수교 이후부터 2016년까지 누적 266건, 6억746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6년 투자는 2015년 6건, 약 800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총 21건, 2680만 달러를 잠정 기록했으며 이 중 제조업 투자가 9건, 262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한국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임금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계, 섬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우즈베키스탄을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의 섬유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률 감소, 고임금, 인력부족, 내수시장 침체 등의 당면 문제를 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투자의 경우 풍부하고 양질의 노동력과 에너지 자원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의 큰 장점이다.

2016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인의 월 급여는 약 150달러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낮는데 반해,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부분 노동자의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부지런한 국민성, 한국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예의가 바르다. 근로자 복지우선의 구사회주의식 노동관행이 잔존하고 있지만 정부의 억압적인 노동정책으로 아직까지 노조문제는 거의 없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대지·공장 임차료가 매우 저렴하고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어 제조 간접비용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우즈베키스탄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비시장과 인근 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3,000만 명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물류 중심국이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新실크로드의 요충지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9월 '외환 자유화 우선 조치'를 필두로 10월 1일 1400개 품목의 관세를 변경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에 이어 이번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 결의안 제정 등 일련의 단계적인 대외무역 관련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존의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무역환경과 구조를 점차 개선하고 있다. 2017년 11월 6일에는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제정하여 해외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량 확대,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경쟁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출 환경 개선에 따른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기업 수 확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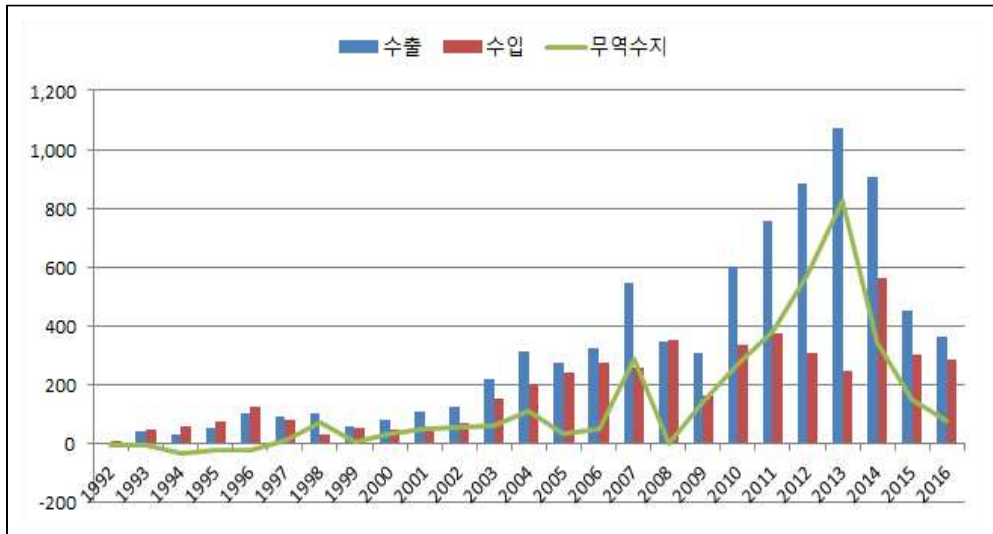
2) 카자흐스탄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카자흐스탄에 적극 진출하고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였다. 1992년부터 무역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감소하였지만 이후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교역은 또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16년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철도 및 궤도용 차량과 관련 부품, 화학공업 생산물, 플라스틱, 광학기기, 건축자재 등 제조품 등이며,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입 품목은 철강,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식물종자 등으로 주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액은 약 6억 5,000만 달러였으며,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77위 무역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교역 확대 가능성은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한국의 對 카자흐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546	348	308	604	757	885	1,074	907	454	364
수입	257	350	166	334	376	308	249	561	305	285
무역수지	289	-2	142	270	381	577	825	346	149	79
수출 증감률 (전년대비)	68.6	-36.3	-11.4	96.2	25.2	17.0	21.4	-15.6	-49.9	-19.9
수입 증감률 (전년대비)	-6.9	36.5	-52.5	100.7	12.5	-18.0	-19.2	125.1	-45.6	-6.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 (검색일: 2017.11.08.)

2005~16년간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대체로 금융 및 보험업(30.4%), 건설업(17.2%), 제조업(15.9%), 부동산업 및 임대업(11.0%), 광업(9.2%)에 투입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2007~08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5~06년에 카자흐스탄 건설업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카자흐스탄 투자는 LG전자와 롯데제과가 현지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동일토건이 아스타나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국민은행(2017년 철수), 신한은행 등이 진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새로운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카자흐스탄 2050(Kazakhstan 2050)’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은 2014년 국가 인프라 개발을 위한 ‘누를리졸(Nurly Zhol)’이라는 명칭의 신경제정책과 ‘5대 제도개혁 및 100대 실행방안(100 Concrete Steps to Implement Five Institutional Reforms)’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진출은 금융, 의료, IT 분야도 시장의 성숙도를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고위층들과 부자들은 대부분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미 고객이 되었으며 한국형 치과 등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다. IT의 경우, 인프라보다는 IT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진출 여지는 많은데 SKCNC는 카자흐스탄 우편물류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경제체제 현대화 전략에 따라 대규모 IT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여지가 많다.

3)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

CIS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노선 선택하여 가격자유화, 대외무역 자유화, 독자 통화도입 및 사유화에 있어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앞질렀고, 서구식 민법을 도입하고 최초로 토지사유화를 비준하였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2012년에도 1인당 GDP가 여전히 1,000달러에 불과한 빈곤국인데, 이는 주로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이며, 경작 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7%에 불과한 등 지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빈약한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무역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무역액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했으며, 2013년 약 1억 6,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키르기스스탄도 러시아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둔화를 겪고 있으며, 전체 무역액 감소와 함께 한국과의 무역액도 감소하였다. 2016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액은 640만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2005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해외이주노동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2010년 GDP 대비 40%를 기록하였으며, 빈곤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3%가 산악지대이므로, 국내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운송 및 교역 비용이 상대적

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 전환시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소련의 계획 경제를 계승하여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2007년 니야조프 초대 대통령 이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점진적인 경제 개혁 조치 실시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가스 부국이고, 현재 자국 GDP의 50%, 수출액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선 다변화 및 생산력 증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인프라, 플랜트 건설 및 에너지 정제 부문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성과 큰 국가로 평가된다.

4.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1) 신북방정책과 중앙아시아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신북방정책은 단순히 러시아에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유라시아 협력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변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펼치려 한다"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해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된 것이다.

인구와 소득 등 시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교하여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시장이 매력적인 국가는 항상 강력한 로컬 경쟁자가 버티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아시아 시장은 한국에 대해 거부감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기술도 이전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 좋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어떤 신흥지역국가보다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성장모델을 자신의 미래로 간주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제기한 글로벌 아젠다와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동안의 협력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수록 지역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역을 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2) 경제협력전략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WTO에 가입하여 있다. 한-중앙아시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FTA보다는 양자간 CEPA 및 다자간 경제협력체 구성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전략적인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이 지역 진출에 결정적이다.

둘째, 수출금융 확대정책이다. 자원에너지, 인프라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진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新성장산업 등 지원부문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또한 IT, 가전, 자동차 등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거래시 수출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한도 증액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출입은행의 전대라인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진출 유망 분야에 대해 수은 전대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1~2개 국가에 신규라인 설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플랜트 산업 수출경쟁력 확보 및 중소기업 진출여건을 개선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 펀드 운영이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에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형 개발 프로젝트 진출 촉진을 위해 장기펀드 운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원 및 SOC 개발 등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기업·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프로젝트 파

*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한국에 대한 현지 주민의 호감도는 카자흐스탄이 전체 응답자의 72.1%, 우즈베키스탄이 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이 전분야에 걸쳐 첫 번째 협력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협력 국가로 선정되었다. 윤성학 외(2010), p. 176-179.

이넨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추세는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개발지원방식이 다양화되고 전통적으로 정부기구가 주도하던 개발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의 역할을 결합하는 협력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공여국의 정부개발기구 및 대외원조사업의 개혁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 창의성을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행되었던 ODA의 효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발지원방식이 다양화되고 전통적으로 정부기구가 주도하던 개발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의 역할을 결합하는 PPP 협력 형태가 활성화되었다.

여섯째, KSP(지식공유프로그램)를 실질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점지원 대상국가로 지정하여 국토개발 등 개발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고위인사 및 경제정책 수립담당 공무원 초청교육, 분야별 정책 전문가 장기과견 등 인적교류를 통한 지한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선진국 국제기구 자문과 차별화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책자문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경험사업은 EDCF 및 무상협력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상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지원대상국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나, 향후 성장가능성을 감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무상협력의 경우, 가급적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의 현지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재외동포는 2016년 기준 약 31만 명(CIS 전체 53만 명, 순수 고려인 기준임)이며,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지리적으로도 수천km 떨어져 있고 국가의 경제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정치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경제개발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14년 유가하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변신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특구를 통한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경제개방으로 정책 방향을 크게 선회하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EAEU에 가입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내세워 이 지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성공적인 신북방정책 가동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략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구축한 다양한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및 인적교류, 현지투자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민들에게 한국이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웃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신북방외교 구상의 최고의 파트너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성장모델을 자신의 미래로 간주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제기한 글로벌 아젠다와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유라시아 강대국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동안의 협력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수록 지역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역을 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대 중앙아시아 접근전략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물류, 통상, 에너지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번영의 유라시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고 북한을 비핵화, 개혁 및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북방정책의 정책적 목표와 일치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09. 「한-중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 대책」 .
- 박지원. 2015.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전략』 .
-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5-003.
- 조영관 외. 2009.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영관, 조희연. 2015.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가현황과 진출여건』 . 수출입은행.
- 윤성학 외.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성학 외. 201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성학 외. 2011.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홍열, 박정호, 윤성욱, 조혜경. 2014.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
- 전략지역심층연구 14-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Astana. 2013. “Kazakhstan: Special Economic Zones.”
- Eurasian Development Bank. 2016. “EAEU and Eurasia: Monitoring and Analysis of Direct Investments 2016.” Report 41.
- . 2017.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2017.” Eurasian Development Bank Centre for Integration Studies Report. 43.
- Invest in Kazakhstan. 2016. Invest in Kazakhstan 2016.
- UNCTAD. 2015. “Investment Policy Review – Kyrgyzstan.”
- . 2017. World Investment Report.
- WTO. 2016.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6.

Abstract

2017 is an important year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Korea and th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each other for 25 years. In this paper, Korea has been evaluating the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since the 25th year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We will examine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plans from the viewpoint of the new Northern policy pursued by Moon's government.

After the fall in oil prices in 2014, Central Asian countries are making aggressive changes to transform themselves. Kazakhstan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its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s. Uzbekistan is turning the direction of the economy with the opening of the economy. In addition, Kyrgyzstan and Tajikistan are joining the EAEU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ussia, and China is accelerating its entry into the region by introducing 'One belt, One road'.

Central Asian countries are the best partner countries in the new North Korean diplomacy initiative in Korea. Uzbekistan has a deep affection for Korea so much that it regards Korea's growth model as its own futu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Korea to support Central Asian countries in order to confront the Eurasian powers such as China, Japan and Russia.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should build a new cooperation model across the region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localized on the basis of cooperative experience and trust.

Korea should now reexamine its strategy toward the Central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Northern policy including Russia based on past success. Korea can establish logistics, trade and energy cooperation strategies based on close cooperation with Russia and speed up the Eurasian era of common prosperity. Korea will be able to secure new markets and resources through Eurasian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Central Asia, to br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ation, reform and openness, and to propose a Grand National Strategy for the new Eurasian era will be.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협력방안

조영관*

I. 서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1991년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대선에서 97.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여 2020년까지 집권하게 되었다. 2016년 3월의 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누르-오타ن(Nur-Otan)당이 82.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의 80.9%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카자흐스탄은 인프라 개발과 산업다변화 등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수출소득으로 축적한 국부펀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위주의 경제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천연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現 한국수출입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근무

가스, 광물자원 등 자원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재정수입, 외국인직접투자 등에서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이 GDP의 25%, 재정의 40%,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인,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참여하며,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카자흐스탄의 운송, 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현황과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과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경제현황 및 발전전략

카자흐스탄 거시경제지표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악화되었으며, 2017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저유가 지속과 최대유전인 카사간에서의 석유 생산 지연 등으로 201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하였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2013년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각각 GDP 대비 6.8%, 2.4%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국제유가 안정과 카사간 유전의 생산 재개, 정부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 등에 따라 2015년, 2016년 1%대의 경제성장률에서 2017년에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2.8% 성장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은행권의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 지출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6.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정부지출 축소와 에너지 부문의 세입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채관련 지표는 2017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110%로 다소 높은 편이며, 총 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300%를 상회하고 D.S.R.도 34.7%에 달하여 대외지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6년 초 카자흐스탄 경제 지표 악화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후, 2018년 초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카자흐스탄은 거시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과 대외지급능력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4.3	1.2	1.1	3.3	2.8
재정수지/GDP	2.5	-6.3	-4.1	-6.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6.7	6.7	14.6	7.3	6.5
경상수지/GDP	2.8	-2.8	-6.7	-4.0	-2.5

자료: IMF, EIU.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운영으로 투자환경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표, 카자흐스탄 기업 대표와 외국 기업,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논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회 총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1998년에서 설립되어 19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문제, 세제 개선, 외국인 노동력 유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영항공사인 '에어아스타나'와 우라늄 부문의 국영기업인 '카즈아톰프롬'의 민영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스타나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 전력기업인 '삼룩에너지', 철도회사인 '테르미줄리', 우편공사인 '카즈포스트' 등의 민영화 추가 추진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기업경영여건은 최근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에서 카자흐스탄은 2016년 190개국 가운데 35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높게 상승하였다. 특히, 건축인허가, 재산권등록, 소액투자자 보호, 법적분쟁해결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자금조달, 전기공급, 수출입절차 등에서는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표 2. 카자흐스탄 기업경영여건

1구 분		기업경영여건 순위	
		2015	2016
	종합순위	41/189	35/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21/189	45/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92/189	22/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71/189	75/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19/189	18/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70/189	75/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25/189	3/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18/189	60/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122/189	119/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9/189	9/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47/189	37/190

주: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기준.

또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카자흐스탄은 2016년 국제경쟁력 순위는 전체 138개 국가 중 53위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통·운송 인프라의 수준, 보건 및 초등교육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3 카자흐스탄 글로벌경쟁력지수

구 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2015	2016
	평균평점/종합순위	42/140	53/138
1	제도(정책, 시스템)	50/140	49/138
2	인프라스트럭처	58/140	63/138
3	거시경제안정성	25/140	69/138
4	보건·교육	93/140	94/138
5	인력관리(연수)	60/140	57/138
6	상품시장 효율성	49/140	62/138
7	노동시장 효율성	18/140	20/138
8	금융시장 발전수준	91/140	104/138
9	기술수준	61/140	56/138
10	시장규모	46/140	45/138
11	기업 발전수준	79/140	97/138
12	혁신	72/140	59/138

주: WEF, GCI 기준.

인프라 개발을 통해 내수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접국으로 연결되는 운송물류 인프라 개발은 교역확대를 통해 경기성장을 촉진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동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타지키스탄 등과 인접하고 있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 및 남-북 물류교류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노후화된 운송물류 인프라의 개발은 국가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지역 내 물류허브를 구축하여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전략을 발표하였다.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연례교서*를 통해 세계경기침체,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5개 개혁 방향을 발표하였다.

성장, 개혁, 발전의 3대 전략과 금융부문 안정화, 조세제도 최적화, 민영화 확대 및 경제촉진, 새로운 투자정책, 새로운 사회정책 등의 5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11월 발표한 ‘누를리 줄’ 인프라 개발전략을 활용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증진을 통한 연 5% 경제성장률 달성, 일자리 66만 개 창출, 연간투자 100억 달러, 10년 간 투자누계 1,000억 달러 달성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방안으로 “누를리 줄”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III.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의 내용

1. 국가발전전략의 내용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년 11월 경기침체 타개 방안으로 국가 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인 “누를리 줄”을 발표하였다. “누를리 줄”의 추진 기간은 2015~19년이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투자로 내수시장을 부양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30위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고자 계획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연례교서, 대국민 발표 등을 통해 이 경제정책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누를리 줄 프로그램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회 인프라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개발추진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주요 개발대상은 운송물류인프라, 산업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난방·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 사회인프라, 중소기업지원 등 7개 분야이다.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모두 17개로, 대부분 운송물류관련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운송 인프라 부문 16개(도로 11개, 철도 2개, 해상·항공·물류 분야 각 1개)와 주택관련 인프라 부문 1개로 구성되었다.** 기타 프로젝트로는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 비즈니스 로드맵 2020 등 기업 역량강화와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이 있다.

* <http://cistoday.com>, CISToday, 2015. 12. 21

** <http://www.mid.gov.kz>, 2016. 9. 28

전체 투자 금액은 180억 달러로 평가되며, 국부펀드, 민간투자유치, 양다자금융기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지원 계획을 세웠다.* 주요재원은 국부펀드로 2015~2017년까지 3년간 연 3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며, 2015년 23억 달러, 2016년 24억 달러의 국부펀드가 ‘누를리 졸’ 프로그램에 지원되기로 하였다. 이외에,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금융기관 금융지원 81억 달러, 국내 기업 및 기관 투자 7억 4,500만 달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운송, 산업, 사회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어 고용창출, GDP 성장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6월과 10월 “누를리 졸” 성과발표를 통해 20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GDP기여도를 2015년 1.3%p, 2016년 1.2%p로 하였다.

각 부분별 주요 추진 부문은 교통·물류인프라이며, 2015-20년 간 전체 6,700km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인프라에서는 아티라우 국립석유화학기술단지(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 Park) 등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 인프라에서는 난방공급망, 상·하수도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JSC Baiterek National Management Holding, Baiterek NMH)이 지원하고 있다. 바이테렉은 카자흐스탄의 국영 지주회사로 국가개발기구, 금융기관 및 국가경제개발의 관리체계 극대화를 목적으로 2013년 5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며, 11개의 자회사가 대규모 사업지원, 중소기업지원, 주택개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1개의 자회사들은 부문별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테렉은 다양한 금융 제도를 통한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경제부문과 혁신적 발전 지원, 국영기업의 수출 지원,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특징으로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방안 보유, 다양한 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프로젝트 지원 경험, 중소기업 지원 경험, 국제금융기구들과의 성공적 협력 경험, 국가 예산 지원 가능성,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주요 정부 관료가 이사회에 포함된다.

* <http://www.time.kz>, 2016. 9. 19

** <https://primeminister.kz>, 2016. 10. 5; 2016. 6. 1

표 4. 바이테렉 조직 구성 및 주요 역할

부문	자회사	주요 역할
투자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대규모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 투자, 수출 지원, 2014~2019 산업혁신 전략 이행 등과 관련된 기관
	카지나 자산관리	
	카자흐스탄 투자 펀드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준비 센터	
기업 활동 지원	국가기술개발공사	혁신 활동 지원, 중소기업 지원,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 지원 등과 관련된 기관
	수출보험공사	
	다무 기업가 정신 개발펀드	
주택 건설	카자흐스탄 주택 건설 저축은행	부동산, 주택건설 저축, 2020년까지 지방 발전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된 금융기구나 국영기업
	카자흐스탄 모기지 공사	
	카자흐스탄 모기지 보증 펀드	
	바이테렉 개발	

자료: www.baiterek.gov.kz

‘산업혁신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4~2019(State Program for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for 2014~2019)’는 대기업에 대한 금융, 투자 및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JSC), 카지나자산관리 (Kazyna Capital Management JSC), 카자흐스탄투자펀드 (Investment Fund of Kazakhstan JSC), 카즈수출보증보험공사 (KazExportGarant Insurance Corporation JSC),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Center for State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 Support LLP) 등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모두 바이테렉의 자회사들이다.

또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비즈니스 2020 로드맵(Road Map of Business 2020)' 사업은 역시 바이테렉 자회사인 국가기술개발기관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Development JSC)과 다무기업가정신개발 (Damu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JSC) 등이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부동산,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2020까지 지역개발프로그램 (Program for Development of the Region till 2020)'은 카자흐스탄주택건설저축은행 (Housing Construction Savings Bank of Kazakhstan JSC), 카자흐스탄모기지공사 (Kazakhstan Mortgage Company JSC), 바이테렉개발 (Baiterek Development JSC), 카자흐스탄모기지보증펀드 (Kazakhstan Mortgage Guarantee Fund JS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5월에는 대통령으로 제도개혁을 위해 ‘100개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방안은 공공행정, 사법제도, 산업화 및 경제성장, 국가통합, 정부의 신뢰성 등 다섯 개 항목의 주요개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무원 인사제도, 민영화,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 차원의 국가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제, 정치 등의 발전과 개혁 방안 등이 담겨 있다.

2. 부문별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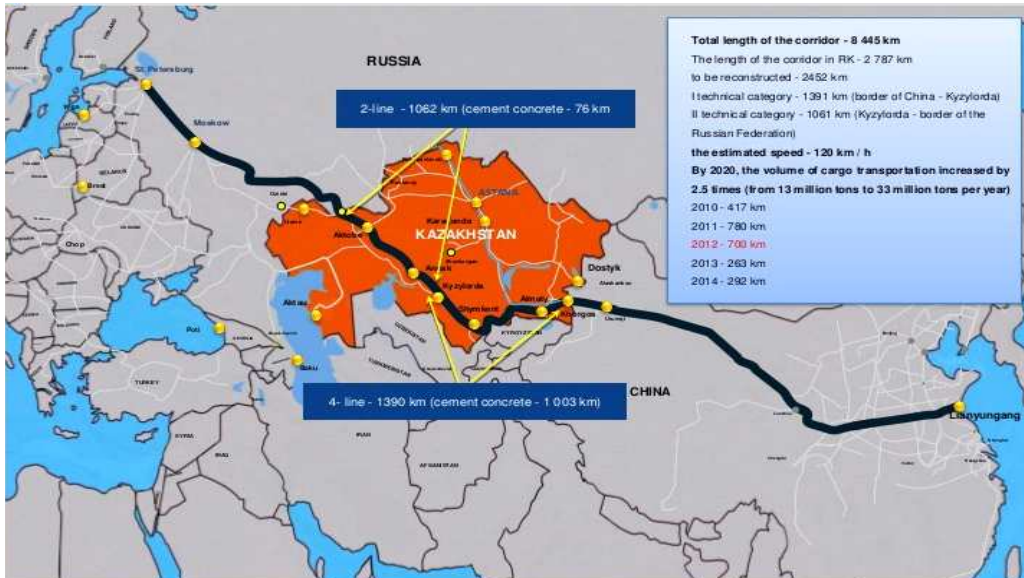
(1) 운송 인프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외경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운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유럽~서중국 회랑과 카자흐스탄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통로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축의 도로를 건설하여 신행정수도 위주의 국가 발전과 함께 국토 전역에 대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쉘켄트, 알마타, 악토베, 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여 지역 도로운송망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도로 부문에서는 ‘누를리 줄’ 프로그램 하에 6,700km에 이르는 11개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관련 주요 사업은 ‘서유럽-서중국 국제회랑 내 카자흐스탄 구간 연결’과 ‘아스타나 중심 동서남북 도로건설’ 사업이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관련 사업에 약 70억 달러를 지원을 계획하였다. 중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중국에서 유럽까지 10~12일 이내 화물수송이 가능하여 해상노선 이용 시 보다 3.5배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이 서유럽-중국 간 도로의 거리는 8,445km로, 중국 구간 3,425km, 카자흐스탄 구간 2,787km, 러시아 구간 2,233km으로 이루어져 있다.

* www.kazinform.kz, 2016. 6. 13

그림 1. <서유럽-(카자흐스탄)-서중국> 국제 회랑 노선 전체



자료: www.railway.kz

카자흐스탄 구간은 중국 국경에서 호르고스, 알마티, 타라스, 쉘켄트, 크즐오르다, 악토베를 거쳐 러시아 국경으로 연결되며, 2009~2016년 동안 쉘켄트-러시아 국경의 오렌부르크 구간과 타라스-알마티 구간(2,028km)이 건설되었고*, 2016년부터는 알마티-호르고스(304 km), 쉘켄트-타쉬켄트(100km), 쉘켄트-잠빌 주 경계(81km)구간이 건설되었다.

또 다른 주요한 프로젝트인 아스타나 중심 동서남북 도로 건설은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신행정수도인 아스타나의 발전을 촉진하고, 2017년 엑스포에 대비하여 운송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2020년까지 완공예정이다. 아스타나-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동), 아스타나-악토베-아티라우-악타우(서), 아스타나-알마티(남), 아스타나-페트로파블롭스크(북)의 4개 구간이다.

철도 부문에서는 ‘누를리 줄’ 프로그램에 따라 ‘알마티(Almaty)-수(Shu) 철도’ 건설과 ‘보르작티(Borzhakty)-에르사이(Ersai) 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알마티(Almaty)-수(Shu) 철도는 알마티(Almaty)와 수(Shu)를 연결하는 철도로 총 길이는 291km이다.**

* <http://www.kazinform.kz>, 2016. 6. 13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Нурлы Жол> на 2015–2019 годы, Астана 2

보르작티(Borzhakty)-에르사이(Ersai) 철도는 보르작티(Borzhakty)와 에르사이(Ersai)를 연결하는 철도로, 2014년 10월 착공되었다. 이 철도는 카스피해의 쿠릭항과 연결되어 향후 에르사이의 철강공장, 쿠릭항 인근의 카즈무나이가스 조선사(건설 예정) 등 쿠릭 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주요 물류루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 정책은 카스피해를 통한 항만 물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스피해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고 주요 국가의 항만 및 운송망과 연결함으로써 코카서스 지역, 중동 및 유럽으로 통하는 물류운송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악타우 인근 쿠릭(Kuryk)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악타우*에서 100km 거리에 쿠릭항 건설을 추진 중으로, 쿠릭항을 통해 곡물, 석유제품, 비료 등 연간 400만 톤의 화물운송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쿠릭항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항 등 주변 국가 항구와 연결되어 유럽과의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쿠릭항을 통한 물동량은 2017년 270만 톤, 2018년 300만 톤, 2019년 36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릭항은 2015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항구 건설에 2016년 3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015

* <http://www.kazpravda.kz>, 2016. 2. 9
<http://www.mid.gov.kz>, 2016. 9. 28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Нурлы Жол> на 2015–2019 годы*, Астана 2015

*** <http://dknews.kz>, 2016. 2. 17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Нурлы Жол> на 2015–2019 годы*, Астана 2015

그림 2. 카스피해-흑해 해상 물류망



자료: <http://novosti.az/transport/1003.html>

이외에도 호르고스 물류경제특구의 발전이 주목된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호르고스에 생산·물류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다. 호르고스 특구는 철도 환적 터미널, 물류 특구, 산업특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화물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운송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철도환적 터미널 129.8ha, 물류특구 224.9 ha, 산업특구 224.6 ha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화물운송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연운강 항에 카자흐스탄-중국 간 협력으로 국제화물터미널을 설립하였다. 양국의 지분은 카자흐스탄 지분 49%, 중국 지분 51%로 구성되어 있다. 호르고스를 통한 물류운송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지분구조를 카자흐스탄 51%, 중국 49%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호르고스 경제특구에 대한 산업 인프라 투자를 점차 확대하여, 2019년에는 호르고스 특구에서 16억 달러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국가의 건설자재산업과 철강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카자흐스탄 건설자재산업 및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Пути Жол» на 2015-2019 годы, Астана 2015

철강산업 등의 발전이 예상된다.

최근 부설된 ‘알마티-수’ 철도에 ‘악토베 철도·철강 공장(Aktobe rail and structural steel factory)’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된 철도 궤도가 사용되는 등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2) 산업 인프라 개발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조업 등 비에너지 부분의 경제 내 비중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및 가스 수출국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낮다. 제조업의 GDP 내 비중은 2008년 11.8%에서 2013년에는 10.7%로 하락하였으며, 비에너지 부분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에서 2013년에는 23%로 하락하였다.

‘누를리 줄’ 프로그램으로 주요 산업 발전부문은 제조업, 농업발전 및 수출활성화 등이다. 제조업은 국부펀드 등을 활용하여 제조 기업들에게 최대 20년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함으로써 자동차, 헬리콥터, 열차 객차 등의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유, 육류, 계란 생산 등 목축업 부문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유지하고자 한다. 수출지원에서는 EAEU 통합, WTO 가입 등의 대외경제환경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서는 신규 전력공급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손실 감소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력망은 전체 60%가 노후화되어 전력 공급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이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최대 20%가 손실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력은 북부에 위치한 에키바스투스(Экибастуз) 발전소, 악수스(Ақсу) 발전소 등에서 국가전체 전력의 78%가 생산되고 있으나, 남부지역은 전력부족으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전력공급망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2011~2017)에서 <에키바스투스-세메이-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 구간에 500kw의 전력선을 연결하고, 2단계(2012~2018)에서 <세메이-악토가이-탈티고르간-알마티>간 500kw의 전력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 사회 인프라 개발

주택 인프라 건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5년도 도시인구 비율은 53.2%로 신흥국 평균인 49.0%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10~15년 간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률은 0.86%로 2050년까지 연평균 1%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금융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누를리 졸” 프로그램을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장기임대 및 매입권 부여, 중개자 없는 주택 직접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지원을 위해 저금리대출, 1차 분할금 면제 및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추진하여 2015-16년간 약 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추진으로 2015년 동안 아스타나, 타라즈, 파블로다르 등 12개 지역에 7,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Baiterek)을 통한 주택건설과 주택금융지원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테렉은 2016년 8월 자회사인 ‘카자흐스탄모기지 공사’와 ‘바이테렉개발’을 통해 각각 임대주택 2008가구(12만 8,500m²sqm) 및 6,500가구(39만 5,300m²sqm)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저축은행’을 통해 모기지론을 집행하고 있다.

난방 및 물 관리 인프라 부문은 수도공급, 열난방, 배관 등 공공인프라 노후화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 필요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전국 수도망의 65%가 노후화되어 물 손실이 36%로 높고 보일러 열효율도 절반 이상이 평균 41%로 낮은 수준이다. 주택배관율도 OECD 평균 90%에 비해 크게 낮은 60% 수준으로 전반적인 주거관련 인프라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Нурлы Жол> на 2015-2019 годы, Астана 2015*

* 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6 edition
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The 2014 Revision)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Nurly Zhol 발표 주요내용(<http://ortcom.kz>, 2014. 11. 11)

*** <http://www.kazpravda.kz>, 2015. 12. 3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미 2014년 5월 수자원관리를 위한 “국가프로그램(State Program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2014~2020”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수자원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관개시스템 현대화, 상수도 및 저수인프라 현대화, 물 절약기술도입 등을 통해 가정 내 물 손실률을 현재의 58% 수준에서 19%로 감소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누를리 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종 난방시설개선 및 물 공급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프라 개선에 최소 1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부펀드 외 민간투자유치, 다자금융기구 협조융자, 민관협력(PPP) 등으로 관련 재원마련을 마련하고 있다.**. 다자금융기관 중 유럽부흥개발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며, EBRD는 2015~2016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물 및 난방 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모두 8개 사업(승인예정 포함)에 2.7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교육인프라 개선을 통해 인적자본육성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과 함께 취학전 교육, 초등 교육 등 기초교육 시설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누를리 졸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교육시설 개선, 3부제학습(three-shift education) 폐지, 학습 중도포기를 감소, 3~6세 대상 기초교육 강화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2016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초등교육지수는 4.1로 138개 국가 중 70위이며, 초등교육 등록률은 86.3%로 118위에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초등교육 인프라 수준은 세계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 전역에 2016년 10월까지 모두 43개 교육시설(29개 학교 및 14개 유치원)이 신설되었으며, 연말까지 10개 교육시설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크몰라, 코스타니, 망기스타우, 알마티 등 지역에서 학교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http://www.kisi.kz>, 2015. 7. 14

* <http://wabis.or.kr>, 2014. 8. 8
<http://egov.kz>, 2016. 8. 18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Nurly Zhol” 계획 발표, 2014. 11. 11 (<http://ortcom.kz>)

*** <https://strategy2050.kz>, 2016. 10. 13

V. 한국과의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먼저 2015년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을 통해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EAEU 설립을 통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창설하였으며, 이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가 가입하여 5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시장을 단일화하였으며, 점차 에너지, 노동, 금융 시장의 단일화를 통한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투자함으로써 EAEU 역내에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진출과 카자흐스탄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국기업의 인프라 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업 참여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누를리 줄” 프로그램 추진으로 교통, 산업단지, 난방, 상하수도, 교육 시설 등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도로건설, 철도차량 및 시스템공급, 발전소 건설, 전력망 공급 등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카자흐스탄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전망 건설사업,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등에 대한 참여가 유망함. 2012년 한전은 알마티 인근에 송전선 건설에 참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난방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열병합발전 기술을 활용한 협력이 가능하다. 2016년 한국지역난방기술은 카자흐스탄의 대형 발전사업자인 ‘알마티전력회사’와 노후발전소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 인프라 개선사업에 건축, 관련 기자재 공급, 교육훈련지원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 부문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6년 11월 한-카자흐스탄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코스타나이 지역의 위생매립장 건설 등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 에너지경제신문 2016. 9. 9

둘째, 다자개발기구에서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양자 및 다자개발기구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AIIB는 이미 ‘타지키스탄의 두산베-우즈베크 국경 간 도로 건설’을 포함한 여러 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ADB, EBRD도 도로, 난방, 상하수도 개선 등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또는 논의 중으로 입찰 예정사업들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확대와 협력 강화, 민간협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하다. 양국 정부는 경제협약체인 경제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정책 및 경제협력채널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활성화, 금융시장 개선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누를리 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통, 교육, 산업 등 분야에서 KSP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2009년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11건의 정책자문(양자 KSP) 및 공동건설팅(다자KSP)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를 통해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누를리 졸’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육, 산업단지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EDCF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내 인프라 개발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민간기업 단체인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가 가능하다.

넷째, 건설된 국제수송로를 한국 상품의 유라시아 진출 통로로 활용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에서 건설하고 있는 국제운송 및 물류루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한국 상품들을 기존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카자흐스탄 및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로 수송할 수 있다.

* 정부가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0월 설립한 2.3조원 규모(약 20억 달러)의 펀드로 주요 사업 분야는 해외인프라 개발 및 기자재 공급임. 정부는 이 펀드를 활용하면 해외국부펀드 및 다자개발은행 등과 연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 중국 연운강-카자흐스탄 물류망



자료 : www.ksg.co.kr, 2016. 9. 22

특히, 연운강(렌웬강) 국제물류터미널에서 연결되는 중국횡단철도(TRC)와 환카스피해 국제수송로(TMTM)를 이용하면 카스피해 연안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터키까지도 상품운송이 가능하다. 연운강 국제물류터미널은 카자흐스탄 국영철도와 연운강 시정부의 협력으로 2016년 2월 건설되었으며, 이곳을 통해 중국에서 유라시아대륙으로 운송되는 화적물동량이 현재 20만 TEU에서 2020년 50만 TEU로 증대될 전망이다.*

이외에 환카스피해 국제수송로(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TMTM)가 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철도당국은 2016년 10월 TMTM 협력 위원회를 창설하고 물류망을 구축 중으로, 이 노선 이용시 중국 연운강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화물운송기간이 해상운송 대비 14일 단축될 예정이다.**

* <http://www.inform.kz>, 2016. 5. 19

** <http://cistoday.com>, 2016. 9. 22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카자흐스탄의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 배경과 전망」 2016. 3.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가현황과 진출여건』 2015. 12.

, 『중앙아시아 인프라플랜트 개발과 우리의 참여방안』 2016.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6. 10.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2016. 9.

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6 edition)

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Нурлы Жол> на 2015–2019 годы, Астана 2015.(<누를리 줄> 2015~2019 국가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http://kaz.moga.go.kr>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http://kaz-almaty.mofa.go.kr> (주알마티 총영사관)

<http://wabis.or.kr> (환경부 물산업통계시스템)

<http://www.emerics.org>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http://www.ksg.co.kr> (주코리아 쉬핑가제트)

<https://primeminister.kz> (카자흐스탄 총리실)

<http://www.mid.gov.kz>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http://www.railways.kz> (카자흐스탄 철도공사)

<http://www.kisi.kz> (카자흐스탄 전략연구기관)

<http://www.baiterek.gov.kz> (카자흐스탄 바이테렉그룹)

<http://kmc.kz> (카자흐스탄 모기지공사)

<http://ortcom.kz>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중앙정보서비스)

<http://egov.kz>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https://strategy2050.kz> (카자흐스탄 국가전략2050)

에너지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테일리뉴스

<http://cistoday.com>

<http://www.kazpravda.kz>

<http://www.kazinform.kz>

<http://www.time.kz>

<http://dknews.kz>

<http://novosti.az>

<http://inform.kz>

IMF (<http://www.imf.org>)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www.un.org>)

EBRD (<http://ebrd.org>)

AIIB (www.aiib.org)

Vol. 2 No. 1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중

배기형

이덕로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일 | 2018년 12월

발행일 | 2018년 12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한 제품생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제적인 식품안전 기준인 HACCP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가공 선도적 기업

(주)코빅푸드는 최첨단 생산설비, 선진의 육가공 기술, 체계적인 품질관리,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축산물 수입, 생산, 유통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는 기업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안전한 식품 및 고품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코빅푸드는 한국의 축산물 공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대형 유통업체, 패밀리 레스토랑, 호텔, 식자재 기업,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KTSC

(주)KTSC(구.한국관광용품센터)는 1972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무분별한 식자재의 개별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모든 관광호텔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수입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KTSC가 직수입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최고의 프리미엄 식자재를 온라인 쇼핑몰 ekt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 및 외식업체 공급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및 신선 채소를 비롯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식자재



전국 유통망 구축. 신속한 배송

4,000여평 규모의 KTSC 물류센터와 본사, 전국 지사, 종합물류센터 연결



Total Food System

한 곳에서 구매하여 일괄 배송을 실시하는 One Stop Shopping